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발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함을 깊이 깨달아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0월 2일 (토) 제 184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멀티사이트 예배, 첨단기술동원 증가

라이프웨이, 듀크대학 NCS 연구,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예배 문화 변화 보도

1998년에 넷플릭스는 우편으로만 DVD를 제공하며 시작된 지 1년 됐다. 2006년, 애플은 최초의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이기 직 전이었다. 2012년, 재택 운동의 개념은 펠로톤(Peloton,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펠로톤 한다"로 바꿔버린 홈 피트니스 회사 펠로톤. 애플처럼 장비를 팔고 넷플릭스처럼 콘텐츠를 공급해서 홈

트레이닝을 주도하는 기업)의 설립과 함께 바뀌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 보라. 동일한 차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교회 예배가 얼마나 변했는지 가늠해야 한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권고한다(9 Ways the Modern Worship Service Is Changing).

미국 교회 예배, 20년간 어떻게 변화했을까?

듀크대학의 미 교회 회중연구(National Congregations Study, NCS)는 1998년, 2006년, 2012년, 2018년의 네 가지 물결에 걸쳐 미국 교회의 대표적인 표본을 조사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교회 예배 상황이 얼마나 조용해지고 조정됐는지를 NCS 연구는 보여준다.



오르간 음악을 사용한다. 한편, 드럼 사용은 90년대 후반 19.9%에서 오늘날 40.8%로 증가했다.

특히 개신교 교회에서는 찬양팀(52%)이 성가대(33%)보다 많다.

5. 예배에서 더 많은 언어 사용

전반적으로 상당한 변화와 함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는 적지만 예배 변화의 한 유형인 스페인어 또는 이중 언어 예배가 성장했다.

2006년에는 6.3%의 교회가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 2018년 까지 미국 교회 10곳 중 1곳이 스페인어 또는 이중 언어 예배를 드렸다.

6. 강단의 다양성 확대

1990년대 후반에 비해 현재 백인 담임목사가 이끄는 교회는 더 적다. 1998년에는 4개 교회 중 3개 이상의 교회에 백인 목사가 있었다(76.9%). 지금은 64.6%로 떨어졌다. 히스패닉 목회자의 비율은 1.8%에서 5.2%로 증가했다.

(3면으로 계속)



“아이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VOA, 텍사스에 정착한 아프간 난민가족 소개

지난 8월 중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약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아프간 카불 국제공항에는 기나긴 탈출행렬이 이어졌다. 12만여 명의 아프간인들이 탈레반이 장악한 모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만 명은 이미 미국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는 그 중 텍사스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어느 아프간 가족을 소개한다 (Afghan refugee family settles in Texas).

미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대형 상점. 어린 자녀 둘을 쇼핑 카트에 태우고 옷을 고르고 있는 가족이 있다. 이 가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고 있었다. 지금은 이곳 휴스턴에서 기독교 민간단체인 국제 YMCA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압둘 아만 세디키는 지난 2012년부터 아프간을 떠나야 할 때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특수부대를 위해 일했다. 낮에는 폭발물 제거에 투입되고 밤에는 야간 작전을 도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프간이 탈레반 정권에 넘어가면서 조국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다.

세디키는 통역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아프간에 있을 당시엔 전 세계가 자신들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3면으로 계속)

 발행인 겸 편집장 김성국 목사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박근재 목사
---	--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반서적/백스펠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book.org |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KIM Mission -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들의 퍼스펙티브스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퍼스펙티브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역멘토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BC대교구, 일보목사)	 토이헤담 목사 (선안목교회, TX)	 윤정영 목사 (LW Comm. Church)	 손찬식 목사 (S.D. 삼일교회)	 강대형 목사 (아시아영양장로교회)	 김용식 목사 (문도교회, 크리스천교회)	 임재량 목사 (NYBC대교구, NY)	 전광성 목사 (NYBC대교구, NY)
 김태숙 목사 (보성교회, NY)	 김성남 목사 (미국군교회)	 최관석 목사 (중앙아시아)	 강경환 목사 (미국군교회)	 김정용 박사 (영안교회)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베이거스)	 최도문 박사 (외과, 시, 달력)	 이원구 장로 (서울세무교회)
 이광천 장로 (ITA 대교구, NY)	 강대원 장로 (NBC대교구)	 최동석 장로 (프랑스, 파리)	 황경규 집사 (미국, NY)	 손동우 장로 (NY, NY)	 이순권 박사 (외과, TX)	 임소영 장로 (웨스트체스터, PA)	 강동철 집사 (Tarrytown, Boston)
 김종대 장로 (보통교회, NY)	 김상익 장로 (WCF, NY)	 한두희 집사 (NY, NY)	 김호태 박사 (C&P Tech, NY)	 윤세범 장로 (선안목교회, TX)	 윤경원 권사 (선안목교회, TX)	 서덕희 집사 (NY, NY)	

[퍼스펙티브스 -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 이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됩니다!]

KIM Mission이 지난 20년 간 미주와 전세계 선교지 및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집중 보급해 온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가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티뷰(Ubiquitous)로 전세계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youtube.com)를 방문하셔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혹은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로 검색하시면 모든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역사" 특강2, "자살테러를 부추기는 이슬람의 생명신학," 특강3, "21세기 세계 선교의 2가지 특징/트렌드" 전체 88강 완전 영상 제작. 이 세미나를 통해 선교적인 삶으로 재현신한 우리 김 미션의 동역자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피터 왜그너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좌우명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자비량 선교와 자비량 헌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미션은 "계산 모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 (미국군예비군 군목, 병원사역, 애리조나 주립 교도소 선교사역)와 모든 평신도 동역자들이 각 삶의 현장에서 일하며 자비량 사역을 원칙으로 설립합니다. 미주 전 지역 교회들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세미나 혹은 선교사경회로 주말 2-3일간에 마치고를 원하는 지역교회, 선교단체 혹은 작은 규모의 선교원지 선교사님들의 모임이라도 있으면 직접 가서 자비량으로 참여드립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The noble man makes noble plans, and by noble deeds he stands!)" (이사야 32:8)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미주본부 (626-354-2294), E-mail: 1020miracle@gmail.com

발행인 칼럼

침묵보다 나은 언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그렇다. 침묵보다 나은 언어가 있고 오히려 침묵이 백번 나은 언어가 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하자면 영의 언어가 있고 육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언어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복음은 유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언어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침묵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머뭇거리길 일이 아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침묵보다 나은 언어이고 절망을 말하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땅과 전리품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적잖이 걱정하던 신하가 물었다. “대왕이시여, 이렇게 다 나누어 주시니 대왕 것은 아무 것도 없나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당히 말했다. “내게 아무 것도 없다고? 그렇지 않다. 나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다. 내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이다.” 꺼지지 않는 희망의 언어는 그를 역사의 인물로 남게 하였다. 마틴 루터 킹도 인종차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겐 꿈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의 세대에 분연(奮然)히 희망을 외친 선지자이다. 세상에 절망을 말하는 사람은 많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적다. 적은 그 희망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끈다. 희망의 언어는 어둠을 확실히 깨뜨리고 낙심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기적의 언어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잘 알고 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침묵하면 안 된다.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여실(如實)히 보여준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향기로운 불철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길가의 장미 꽃 감사/ 장미 꽃 가시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가을타는 남자가 있는가. 가을얇이 여자가 있는가. 그래서 이 가을, 침묵이 답인가. 계절이 힘들고 환경이 괴로워도 침묵보다 나은 언어가 있다. 감사다. 감사는 품격 잡겨있던 풍요의 창고를 활짝 여는 열쇠이다. 오래전 박창운 목사님을 뵈던 적이 있다. 목사님은 어릴 적 불발된 폭탄을 만지다가 그것이 터져 양눈과 양팔을 잃으신 분이다. 왜 아픔과 실움이 없으셨겠는가. 죽으려하신 때도 있었다고 하셨다. 삶은 은혜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낙담을 감사로 바꾸셨다. 목사님 곁에는 사람들의 모진 편견을 감사로 넘겨내시던 사모님이 계셨다. 여기 침묵보다 나은 언어, 아니 침묵하면 결코 안되는 언어가 있다. 무엇인가? 복음, 희망 그리고 감사이다.

중국 ‘공동번영’ 위해 ‘공산’으로 되돌아간다!

BBC, 시진핑 주석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복귀하는 이유 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자본주의는 '최대 속도로 전력질주'하는 독자적인 형태로 커왔고, 중국인들의 삶은 이러한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중국은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국민 일부가 엄청난 부를 누리도록 허용해왔다. 이를 통해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의 잔재인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결국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믿고 있었다. 이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중산층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계층이 이전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됐다. 중국은 1970년대 불황을 딛고 최대 경제국을 향해 전력 질주했고, 오늘날 세계경제 지배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위치에 올라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 격차는 중국 고속성장을 겪은 세대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 1980년대에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던 부모세대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렸고, 자녀들이 휘황찬란한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화려한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데 돈을 썼다. 그 반면 지금도 많은 건설노동자들은 내 집 마련 방안조차 깜깜한 실정이다. 공산당은 이러한 소득 불평등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늘 "중국특색 사회주의로"라는 선전 문구를 이용했다. 중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상당한 철학적 자유를 얻었고, 여러 측면에서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시 주석은 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할 듯하다.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공산당에 "공산"을 되돌리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는 "공동번영(common prosperity)"이다. 이 문구는 곧 길거리의 선전 포스터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주석의 정책 실행 방안의 초석이다(Changing China: Xi Jinping's effort to return to socialism).

중국 부유층의 탈세 단속과 사교육 기업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좀 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활동은 "공동번영"과 좀 더 일치하는 방향이다. 현재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을 단속하는 것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시 주석은 이 공산주의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정말 믿는 걸까. 100% 확실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확실히 그런 듯 하다고 말할 것이다. 과거 공산당 관계자들이 이 아이



친이 세운 정책의 우선순위와 차별화하면서도 마오쩌둥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추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계획은 여전히 꽤 주목할 만한 듯하다. 시중신이 투옥되자 15살 소년이었었던 시진핑은 수년 동안 동굴에 살면서 밭에서 일해야 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는 분명 시진핑을 강하게 단련시켰다. 그는 특히 강경파들을 미워하거나 정치를 증오하는 입장으로 쉽게 변할 수도 있었지만

소득 불평등 탈피위한 “중국특색” 사회주의에서 전환 “공동번영” 정책 시행으로 이용자 혹은 피해자 예측

다이어를 반기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요한 점은 공산주의 방식의 부의 재분배 측면, 그리고 시 주석이 중국의 과제를 실현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공산당이 국민의 일상생활 대부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공산당의 해결책은 게임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송배하는 바보상자 TV에 10대들이 중독됐다면? 공산당은 “여성스러운 외모의” 남성 연예인들을 TV프로그램으로부터 출연 금

지한다. 인구 절벽 위기가 다가온다면? 공산당의 해결책은 모든 가정에 3자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축구, 영화, 음악, 철학, 아이들, 언어,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그들의 해결책을 만들어 냈다. 시 주석이라는 지도자를 이해하려면 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부친 시중신은 온건파로 알려진 공산당 전 쟁영웅이었으나 마오쩌둥 시대에 숙청돼 옥살이를 했다. 당시 시 주석의 어머니는 남편인 시중신을 공개 비판해야 했다. 시중신은 1978년 광둥성 당위원

회 제2서기로 복귀하면서 광둥성의 경제 자유화를 추진했고, 중국의 가장 진보적인 지도자 중 하나인 후야오방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단적인 공산당원들이 시중신을 탄압했으며 시중신이 개혁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왜 시 주석이 부친의 신념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끄는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아마도 시 주석은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친의 노선에 단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시 주석은 적어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부

그치지 않았다. 일부 관측통의 추정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이 1960-1970년대의 혼란기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안은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또한 관측통들은 시 주석이 원하는 기간만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추측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 주석은 자신의 결정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이 통제하는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는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 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각종 소위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 내 - 지아익(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장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제 20회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20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ewlife-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500자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21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21년 12월 12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수여식 2021년 12월 26일 주일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wlife-chicago.org
newlifechicago@yahoo.com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847-359-5200 F.847-359-8409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티사이트 예배...

(1면에서 계속)
7. 담임목회자 평균연령 증가

잘 나타나 있다.

8.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역동적인 예배증가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2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삶의 경험을 갖고 있다. 담임목사의 평균연령은 1998년 49세에서 오늘날 57세로 높아졌다. 이것은 교회성장 정체현상과 함께 많은 교단과 교회가 젊은 지도자를 강단으로 끌어들이는 데 점점 더 무능해진다는 다른 연구(바나나리서치, The Aging of America's Pastors)에

오늘날 예배가 20년 전보다 더 역동적이며 활기차다. 1998년 44.6%에서 지금은 대부분의 예배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62.7%)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예배의 27.9%에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이 포함된다. 1998년에는 19.2%의 회중이 그랬다.



9. 더 많은 첨단기술 동원

교회는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주보나 찬양 악보 복사지를 사용하는 예배순서를 가질 가능성이 적고 시각적 영상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서면 서비스 주문의 사용은 1998년 72%에서 현재 66%로 감소한 반면, 주일예배 설교요약이나 광고 그리고 음악 가사를 투사하기 위한 장비 사용은 11.9%에서 46%로 증가했다.

아이에게 밝은 미래가...

(1면에서 계속)
아프간인들의 생각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들 아프간 국민들을 버리고 떠나 버렸다는 것이다. 미군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세디키 가족은 미국의 특별이민비자(SIV)를 취득할 자격이 있었다. 카불 국제공항으로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도 끈기를 갖고 또 행운도 따라준 덕에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도착했고,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방 하나짜리 자그마한 아파트를 새 보금자리로 얻게 됐다. 아프간에서 평생을 보낸 세디키 씨는 별의별 경험

을 다 했다고 했다. 폭탄이 터지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 죽어 나가는 모습을 늘 보아왔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자신은 안전한 삶을 원했고 미국에서 그런 삶을 살게 돼 행복하다며, 그저 조용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했다. 세디키 씨를 위해 통역을 하는 사람은 사나 와베크이다. 국제 YMCA 소속으로 세디키 가족의 미국 정착을 담당하고 있다. 와베크는 최근 몇 주간 휴스턴으로 온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아프간 난민들은 목숨만 건질 요량으로 급하게 아프간을 떠났기 때문에 다들 빈손으로 미국에 온다. 따라서 국제 YMCA는 이들이 직업을 찾는 것부터 식료품 보조나 의료보험

같은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도와주고 필요한 서류작업도 도와주고 있다. 이날 세디키 가족과 함께 쇼핑에 나선 다른 한 가족이 있었다. 바로 트램 호 가족으로 이날 물건 구매 비용은 모두 호가 지불했다. 호는 베트남 전쟁 당시 10대의 나이에 미국에 정착한 난민이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미국에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기위해 함께 쇼핑에 나섰다. 미국에서 태어난 두 딸도 특별히 데리고 왔다. 호는 사이공이 몰락했을 당시 자신도 세디키와 같은 처지였다 보니 각별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세디키 가족이 이렇게 안전하게 미국에 오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라며, 자신도 1981년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고 또 그 당시

미국인들이 두 팔 벌려 자신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세디키는 36살의 나이에 빈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말한다. 여전히 다른 가족들은 아프간에 남아있으며 다들 하루빨리 아프간을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미국에서 할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 세디키는 어린아이들이 미국에서 좋은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그저 행복하다고 했다.

중국 '공동번영' 위해...

(2면에서 계속)
다만 시 주석은 농민들에게 옥수수 재배 등 농사에 대해 조언하고 그에게 환호하는 현지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준비한 환영을 받고 떠나는 모습을 TV에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활동에 어떤 새

로운 규제, 제한, 또는 지침을 놓을지, 그중 무엇이 얼마나 깊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최근 일주일 사이 중국 체제를 지배하는 규정들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솔직히 이 규제변화를 따라잡기는 어려웠다. 대다수의 변화가 완전히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이 국내에서 다양한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것 자체에는 타고난 문제가 없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면 될 일이다. 진짜 문제는 갑작스런 불확실성이었다. 한 달 후 기본규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면 아무도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일부 중국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성장하는" 국가의 자연스러운 일면으로 본다.

규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충격요법을 쓰는 전환기는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고, 새로운 규제가 확정되면서 진정 국면을 맞을 것이다. 다만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전혀 명확치 않다. 확실한 것은 공산당이 "공동번영" 정책을 실행하면서 권력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때 시 주석의 이러한 정책은 어떠한 변화라도 만들어내야 하며 중국에서는 이 정책의 이용자가 되던 피해자가 되던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시론

'코로나 블루와 블랙' 안에서 맞는 올 가을엔!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넓은 땅을 정복한 몽골의 칭기즈 칸에게 큰 뇌우침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사냥을 나갈 때면 늘 매를 데리고 다녔고 매를 사랑하여 마치 친구처럼 여기며 길렀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매를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자신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가뭄으로 개울물은 말랐거나 바위틈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석간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떨어지는 물을 잔에 받아 마시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바람 소리와 함께 자신의 매가 그의 손을 쳐서 잔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하자 칭기즈칸은 몹시 화가 났지만 화를 참고는 다시 물을 받

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을 마시려는 순간 매가 날아와서는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재빨리 칼을 휘둘러 매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매를 치우면서 물이 흐르던 바위 위를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죽은 독사가 샘물 안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만약 칭기즈칸이 그 물을 마셨더라면 뱀의 독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매는 그것을 알고 물을 계속 앓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칭기즈칸은 금으로 매의 동상을 만들어 양날개에 각각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여운글).

화, 분노'. 정말 상당히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은 당시 자기 감정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잠깐, 그 이후에는 분노한 것을 애써 모면하고 정당화하려고 취하게 되는 고집과 아집들, 이로 인한 관계와 일들의 단절과 파괴 등 등 부정적인 결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승걸 교수(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노는 본능적 감정이 순간적인 말 또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조절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 노출, 마음속 억눌린 화 누적, 성장과정 중 정신훈 외상,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무시당한다는 생각, 특권 의식이나 피해의식, 뇌의 감정조절 기능 저하, 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한 사회나 문화적 환경 등이다. 자주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거나 일방적 성격인 경우가 많다. 분노조절 문제를 안고 있다면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은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분노조절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들 주변이나 교회 안에서도 흔히 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되면 시도 때도 없이 불속 화를 내거나 자기 분노를 싣는 다 표출해 위협적 상황을 만들어 주변을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일들이니 다 잊읍시다'하며 자기는 꽤나 쿨한 사람인양 스스로 멋지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분노조절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약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우울감인 '코로나블루'를 넘어서 우울증 단계인 '코로나블랙'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상에서 화를 내고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조절'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전문가들은 "분노가 치미는 순간에 1-2분 참고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세우거나 견딜 수 없으면 상황을 피하는 것, 상대의 입장이 돼 보는 역지사지 태도를 갖는 것, 불만스럽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로 상황을 대응하는 것, 표현법 개선, 격렬한 감정이 치밀 때는 잠시 참으며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성경은 분노가 치밀 때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잠15:1),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딤후2: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낸다면 그것으로 인해 죄까지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그분을 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리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 '분'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과 통로가 된다고(엡4:26-27).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항상 분노했을 때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칭기즈칸은 금으로 매의 동상을 만들어 한 날개에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라는 문구를 새깁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일지라도 조금이라도 판단하지 말고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나 스스로를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분노조절, 자기절제, 자기조정능력'입니다. '성숙한 진가'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상황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과 순간에 나타납니다.

올해 가을도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블루와 블랙 안에서 맞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겪는 일상에서 이유 있는 분노와 깨달 없이 화가 치밀어 올라도, 스스로 그 '분'을 유순한 대답과 기도로 다스리며 해결 때까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나는 물론이고 주변 이웃들을 조금은 더 감사와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풍요로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믿음과 0.2%의 가능성, 돌파하는 믿음, 간절한 매달림,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박 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17자) 대한민국의 국적자중 가장 긴 이름입니다. 누가 이렇게 길고 시적인 이름을 딸에게 지어주었을까요?

둘째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딸을 보려고 달려오는 길에, 기쁨과 감사로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밤

하늘의 별과 하늘이 하도 예뻐서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의 앞 두 글자와 뒤의 두 글자를 합해 ‘박하우리’라고 줄여서 부르며, 여권에도 ‘박하우리’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주로 아버지가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

을 지어주었습니다. 직접 부르기 쉽고 듣기에 편안한 이름, 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진 이름을 지어줍니다.

때로는 작명소에서 돈을 내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자로 나라 노(魯), 창성할 창(昌) 빼어날 수(秀)를 쓰는 제 이름도 아버지가 유명한 작명소에서 지어왔다고 합니다. 이름에 ‘창성하고 빼어날’ 인물이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기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여 ‘누리, 다은, 하니’ 등의 순우리말로 짓기도 하고, 최첨단, 임신중, 차돌’ 등의 특이하고 웃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기를 입양했다고 ‘길태’(길에서 태어났다)로 아기이름을 지어준 양부모도 있고 ‘고장난 벽시계’를 너무

좋아해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손고장난벽시’로 개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자녀의 이름을 영어로 짓거나 영어로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지어주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한국어 이름을 지어주는 교포 2세대도 있습니다.

또 ‘다니엘, 한나, 바울’ 등 성경의 인물이나 ‘하은’(하나님의 은혜), ‘하영’(하나님의 영광), ‘예찬’(예수님 찬양) 등의 신앙고백을 담은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크리스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성장과정에서 아이의 이름은 아이가 자아상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영원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모슬렘국가, 힌두교국가, 공산국가에서는 박해와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 세상 어느 이름보다 더 고귀한 이름입니다. 아무도 작명해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고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고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있습니다.

내게 영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정체성을 부여

해줍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줍니다. 나를 낙담과 절망에서 벌떡 일으켜 줍니다. 나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는 어떤 고귀한 의미가 담겨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 이름에 담긴 고귀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인생을 사십니까?

그 이름을 사랑하십니까?

비록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생명이 있는 그날 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에 담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푸/른/초/장

김성일 목사
(KAPC 교단 총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를 가슴을 찢절하게 아프게 하는 사건입니다. 끔찍한 영상물을 통해 참혹하게 처형시킬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총질해대는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자유를 속박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신앙 때문에 죽임당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진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에 힘들어진 나라가 더 늘어난 상황이기에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행 9:5)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9:15) 하시고, 바울로서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역사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종, 다른 국가, 다른 피부 색깔, 다른 문화,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진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다.

1.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보면 현대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은퇴 후 나이임에도 역사의 전환점의 지도자로서의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75세 나이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나라 영역도 다 다르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갔을까요?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마치 사냥꾼처럼 적절한 시기를 위해 오늘도 호흡을 조절하며 손가락의 힘을 빼고 그동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어놓지 못하고 한 눈은 감고 한 눈만 크게 뜨고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라도 하지만 어떤 경우 그러다가 가까운 세월을 그저 낭비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생각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평과 감사와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대한 자세 역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의 하나가 됨을 파괴하는 시작점은 외부의 말쟁이들의 주절대는 말에 대해 평소 불평불만에 사로잡혀있던 내부의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배도자, 배신자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직분으로 신분 상승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남의 등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등을 보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에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선교 현장을 직접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선교를 말로만 배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선교는 현장에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대신에 드러야 하는 피가 묻은 무릎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악 중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절실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주님께 헌신된 굳은 살 박힌 손발로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씩 새겨나가며 배워야 합니다. 간혹 목사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사는 방법을 보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섬겼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20절

그러한 나라 형편 가운데서도 2000년 초 파송 받아 현재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여러 번의 수술 과정에 죽다 살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는 평신도 자매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그러한 삶을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자세를 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만 생각하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오수르 제국이 멸망하기를 소원하던 요나와는 달리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나니 내가 어찌 어찌 아니하겠느냐”(은 4:11)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혹시라도 니느웨가 구원받을까 봐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가지 않고 다시로는 배를 뒀던 요나, 도성 한 바퀴를 돌려면 삼일 길이나 되는 니느웨성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음에도 딱 하루만 “사실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은3:4)라고 외쳤던 요나의 마음이 어찌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죄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한국인, 한인으로서만 국한되어진다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부분적 순종은 아닌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을 사람에게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권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손쉽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현대인의 특성상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사람 얼굴도 인생 살기도 삶의 구조도 생활 형태도 심지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도 예술적인 디자인도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그냥 맛들 어지게 보이는 게 하는 데만 관심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나름대로 독특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각자 부르심에 따라 다양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품 진열대 놓인 일정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작품의 삶, 주님의 권세 앞에서 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장12:1) 하시고, 애굽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 9절에서 “이제 가라” 하시고,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14:12)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던 85세의 갈렙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심에 나 이로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고백하며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핑계를 대지도 소외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젊든지 인생의 노련미를 갖춘 나이가 되었던 지에 상관없이 생각만 하고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이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듯 말하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정확하게 그 일을 해결할만한 실력이 없거나 말로만 일하는 척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큼니다. 언제나 자기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듯이 감당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삶과 사명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국가도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되도록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인생임을 봅니다. 대충 살펴보면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유다는 신전 장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의 동침을 통해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총성된 우리아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 밋세바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죄악 된 사람은 결코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심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심을 믿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없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과 기

3.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인생살이를 시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행복추구만을 위해 사는 것이 목표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살이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복 추구는 자신도 타인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인생의 패턴이나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륜은 자신의 등에 새겨져 있기에 누가 내 등을 보고 살고 있는지를 알면 세상을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해보면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을 생각하면서 습관적 접대의 기질적 성향은 문화적 영향이지 신앙의 깊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기도회 참석 여부로 신앙이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뒤투수를 맞는 지름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베풀어주신 사랑으로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5면으로 계속)

물질, 하나님의 관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오래 동안 재물에 붙은 마음을 떼지 못해 영적으로 매우 비참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추해지는 사람들을 많음을 보게 된다. 많은 경우, '내가 탐 흘려 모은 재산'이라는 생각에 철저히 노예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급기야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분쟁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분쟁의 문제에 휩싸여 성도 간 물질문제로 소송을 벌이기까지 하는데, 돈 문제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 정도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빠뜨리는 것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문제는 그 사람들만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 인생의 머리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멈추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결과

문에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감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것은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사람이 왜 물질에 집착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부분에서 자유하고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이 유한함'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거기서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한다. 유한한 인생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물질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인생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살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은 스스로 삶을 규정하기를 인생은 나그네, 우거하는 자, 그림자 같아서 머

포기의 선언이며, 말씀의 규례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포기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영원히 취할 수 없는 물질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너무나 쉽게 바꾸어 버린 것이다.

사명따라 흘러가는 물질

이 어리석음은 역설적으로 물질을 통해 생명과 삶을 회복시킬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엘리멜렉의 근족으로 지칭되는 이가 선택한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에게 허락된 물질을 통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인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스스로 내어버린 것이다.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가 가진 물질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의 가치가 전혀 다르게 판단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엘리멜렉의 근족은 신을 벗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과 의무를 포기하게 됨으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

그러나 언제나 그 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물질 그 자체를 구하기 때문이다. 삶이 더럽고 추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고 뒤에서 등을 쳐서까지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물질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사람이 점점 미쳐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돈이 된다면, 화장실 돌맹이도 섬기는 모습이 된다.

사명 앞에 생명과 삶,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 특별히 물질을 내려놓을 때 삶은 존귀해지기 시작한다. 물질의 부분에서 포기하지 못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농사의 추수를 좋게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쉽게 항복해 버렸던 것이다. 열왕기의 왕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왕들이 왜 우상숭배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유한(有限) 인생의 무한(無限) 영광

- 물질, 사명, 존귀함

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더 큰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에 직면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한 관점이 신앙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성장에 해로운 요소가 됨을 기억해야 한다. 특별히 '내가 피땀 흘린 돈으로 교회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불행한 생각들이 개인이 신앙을 망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경우를 본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사사로운 주인 의식은,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할 교회에서 자신을 터주 대감 위치에 올려놓으며, 마침내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의 조맹아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에 열심을 낸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몸부림 하는 것이다. 같은 물질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구별된 의식이 존재한다. 탐 흘리며 성실하게 삶을 감당하고 물질을 모으지만 '피 탐 흘려 번 돈'이라는 의식에 앞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다. 즉,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바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건장주시고, 직장주시고, 일할 환경주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라는 의식이 저들에게 있더라는 것이다.

유한한 인생, 유한한 물질

물질의 손해, 지나친 탐심 때

무름이 없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다.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고 잠시 살다 갈 인생이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답으로 발견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합한 자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아침안개 같아서 잠시 머무는 곳이 이 땅에 속한 재물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포기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물질과 어리석은 자

성경은 물질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시편 39:4-6에서, 저들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bustle)'하며 누가 취할지 모르는 재물을 쌓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에 대해서는 '바보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의 룯기서에도 물질에 매인 어리석은 자를 보여준다. 축복의 규례 앞에 신 벗어주는 자가 된 엘리멜렉의 근족이 그런 사람이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축복의 규례를 거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신을 벗음으로 인해 포기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님을 알지 못했다. 엘리멜렉 가문의 생명에 대한

다. 한마디로 사명의 포기는 곧 축복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명이 있음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예비 된 상급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머니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신을 벗어주지 말아야 한다. 자기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신을 벗어버리면서까지 그가 그토록 소유하기 원했던 그 물질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기억하기에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물질이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회복의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물질로 인해 그의 삶과 의미가 전혀 새롭게 되어진 것이다.

신명기 25장은 "신 벗어준 집"이라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과 책임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는 반드시 교회가 요구할 때 물러서지 않고 생명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다. 피갈이 번 물질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충성할 때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간증 있는 신앙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명, 내려놓음에서

땅에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존재이다. 예수님도 떡과 생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공을 들였는가? 그것이 훨씬 더 빨리, 편하게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게 할 줄 믿었기 때문이다.

사울왕을 보라. 그가 왜 예배에 실패하였는가? 전쟁의 호기를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명예와 함께 따라오는 삶의 안락함을 놓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대대손손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한 이들의 모든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번 버리시니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욕심을 너무 고상하게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 돈, 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려놓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들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교묘하게(?) 우회하는 것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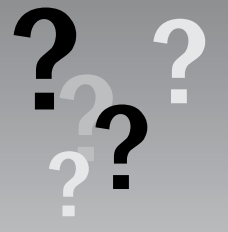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에는 마치 엘리멜렉의 근족처럼 지키며 가지고 싶었던 것들도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되고 사명 앞에 두렵 없이 나아가므로 당연히 얻고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 높이는 바로 그 영혼의 존귀함을 놓쳐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된다.

방법은 무엇인가? 사명 앞에 거침없이 내려놓는 것이다. 마침내 그 믿음의 순종위에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davidnj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전에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독교인과 교회를 핍박하였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팔로스버디스 김 권사

A: 바울 그는 회개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핍박자"로 악명 높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질문하신대로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그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유대종교에 심히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특별히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스테반을 중심한 헬라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민족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점이었으나 보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유대정치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파멸을 예고하였을 때 유대정치, 종교지도자들이 분노하여 이를 예수 처형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던 것처럼 바울은 헬라계 유대 크리스천들이 성전과 율법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유대교를 몹시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셋째, 이미 유대종교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대교를 위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한 나사렛예수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기다리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전파하는 것을 보고 더욱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신명기 21:22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을 분명히 율법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울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였을 때 이를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후일에 그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 회심하였을 때 갈라디아서 3:13절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당시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를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불경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려려 그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거짓되었다고 생각하여 핍박했던 크리스천들과 그들의 메시지가 옳았으며 반면에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신앙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율법에 의한 의를 추구하는 자신의 바리새파 신학이 산산이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십자가 신학이 그 자신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빌3:7-9, 고후4:6).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혁명적 변화가 주어졌으며 가치관판단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빌3:6).

푸른초상

(4면에서 계속)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에 관심 두지도 말고 각종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도 말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매달라가는 시대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순간마다 주님께 여쭙어보며 응당받아 순종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십시오.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가

서 주님께 순종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삶으로 섬기십시오. 회개와 헌신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님 섬기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여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듣는 사람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 전할 말씀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십시오. 각자의 기도과 물질로 순발로 헌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서신

“다가오는 역경 그러나 뚫고 나가는 믿음”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고 안이숙 사모님이 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책을 기억 하십니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잘 대변하는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백박이 정상으로 뛰고 몸에 에너지가 솟아나면서 별떡 일어나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누군가를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안에서(In the Spirit)

는 그런 경험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나왔던 길을 다시 걸어 보겠느냐고 물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절벽 위에 섰던 경험과도 같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서 보겠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은 지나온 과거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넘어 왔지만 앞에는 여전히 높은 산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역경의 높은 고갯길들을 넘어왔지만 앞으로 달려갈 인생의 여정에는 여전히 역경의 고갯길들을 피해 갈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히는 길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부딪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가올 역경의 고갯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지요? 역경의 고갯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거듭난 이후에도 거듭나기 이전에 만났던 세상과 동일한 세상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결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거듭나기 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의지로 역경을 헤쳐 나왔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역경을 헤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 부터 오는 것 인지를 주목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출처가 잘못되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길인 줄 알고 따라 갔는데 막상 가보니가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님을 깨닫고 ‘T’자 막다른 골목에서 방향하며 보낸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도 후회하지 않는 참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서 그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취하였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출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무슨 역경이 다가와도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계산으로 살면 그 계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계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뒤따를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라도 다가오는 인생의 역경을 담대히 그리고 여유 있게 마주할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프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아프간은 매년 오픈도어즈가 공개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중 하나다.



오픈도어즈 영국·아일랜드 지부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9가지 방법’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도 제목을 공개했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아프간은 탈레반이 장악하기 전에도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다.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50개국 중 올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먼저 꼽은 기도제목은 아프간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안전이다. 오픈도어즈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을 당시 많은 기독교인이 제3국으로 도망쳤지만 일부는 아프간에서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잔류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아프간을 탈출했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난민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5월 현재 아프간에서 약 10만명이 고향을 떠났다고 했다. 이후 난민 숫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레반 통치 아래에서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 오픈도어즈는 “무엇보다 소녀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많다. 그들이 계속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잃지 않으려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함께 아프간에서 위기에 처한 기독교 인도 기도도 필요하다. 오픈도어즈는 “아프간에선 기독교인인 게 공개되는 순간 사형당할 수 있다. 현재 비밀리에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면서 “‘배교자’는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라 명예살인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도 했다. 오픈도어즈는 또 식량과 경제 위기, 코로나19 감염 상황, 테러 위험도 우려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1400만여명의 아프간인이 기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엔 아프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아프간은 현재 의료 시설이 붕괴됐고 치료에 필요한 산소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오픈도어즈는 탈레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아프간이 새롭게 세운 정부엔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미국 FBI가 수배한 테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 오픈도어즈는 “성경은 우리에게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아프간의 지도자들에게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프간 광장에 내걸린 시신...

아프가니스탄을 무력 장악한 탈레반이 서부 헤라트시 중앙광장에 범죄자 4명의 시신을 내걸었다. 이에 탈레반이 과거처럼 가혹한 탄압을

하는 공포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NN 등 외신은 지난 25일 탈레반군이 아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4명을 사살해 헤라트시 중앙광장 크레인에 매달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지난주 헤라트시에서 한 사업가와 그의 아들을 납치했다. 이들은 탈레반군과 총격전을 벌이던 도중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이 임명한 경찰 관계자는 납치된 사업가와 아들은 무사히 구조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의 시신이 총격전 후 중앙광장에 버려졌다는 점이다. 탈레반 관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납치범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광장에 시신을 걸어뒀다고 말했다. 중앙광장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목격자는 AP 통신에 “탈레반이 처음에는 4구 전체를 중앙광장에 전시했지만 다음 공개전시를 위해 3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이전 집권과는 달리 더 온화한 정치를 펼치겠다던 약속과 달리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심각한 인권 탄압과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다.

언론인은 구금 및 폭행을 당했으며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체재를 맞아야만 했다. 또 탈레반은 시위에 참여한 아프간인들을 향해 구금과 구타는 물론 총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중앙광장에 시신을 내걸고 며칠 지나지 않은 26일에도 탈레반은 아프간 남성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26일 BBC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미용사들에게 면도나 수염 등을 다듬어선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슬람 율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탈레반의 이 같은 행동을 본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공포정치를 자행하던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美 상원의원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뒤집을 것”

조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 심장박동법(Texas Heartbeat Act)과 여성 건강법(Women's Health Act)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동안, 아칸소주의 한 상원의원은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아칸소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법원이 합헌성을 검토하기 위해 받아들인 ‘둡스 대 잭슨우먼헬스’ 사건을 인용하며 “로 대 웨이드 사건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코튼 의원은 “미국 헌법에 관한 한 대법원 판사의 대다수는 원문주의자 또는 원전주의자들”이라며 유일한 장애물은 판사들에 대한 ‘엘리트 주의자들의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코튼 의원의 말을 인용해 “법관들이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

일한 방해는 진보 엘리트들의 강력한 사회적 압박이다. 지금은 헌법의 진정한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워싱턴프리비콘(Washington Free Beacon)에 따르면 이날 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코튼 의원은 엘리트들이 가한 일종의 압박을 보여주는 둡스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20일 미국변호사협회 법관들에게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하도록 촉구한 의견서를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튼 의원은 “의견서는 ‘판결을 뒤집는 것은 법원이 비정치적 기관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는 약 6만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이 법원 판결에 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해 온 언론을 맹비난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마스 대법원관은 “언론들은 특정 방식의 보도를 통해 대법관들이 미국 헌법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대법원의 모든 신념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한 인물이다.

그는 “언론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개인 취향에 맞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태를 반대하거나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문제다. 이는 법 제도에 대한 믿음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저는 언론과 이익 단체들이 이를 더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둡스 대 잭슨우먼헬스 사건을 12월 1일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시시피주를 포함한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의 합헌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 소송은 실제로 임신 15주 이상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미시시피주를 상대로 제기됐다.

미시시피주는 지난 5월 ‘로 대 웨이드’ 사건 심리가 받아들여지자 대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49쪽 분량의 브리핑을 대법원에 보낸 로 피치 주 법무장관은 “건전한 헌법 이해”를 한다며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정말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코튼 의원 역시 “헌법이 어머니의 건강을 보호할 권한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와 같은 관습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보장하기 때문에 로 대 웨이드 판결 없이도 미국은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1973년까지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낙태법을 제정하고 있었다”면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기각할 경우, 주정부들은 다시 권한 부여받고 예전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까지 어떤 주는 낙태법을 개정했고, 어떤 주는 법을 자유화했고, 어떤 주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각 주들은 다시 그들의 길을 택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재심할 때가 됐다”고 했다.

HRW “중진선언? 北인권문제 다뤄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한국전 중진 선언 논의와 관련, “모든 정치적 합의에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23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단체는 정치적 합의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정치적 합의에는 인권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프턴 국장은 “어떤 정치적 합의라도 인권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제적 수준에서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무기 확산 및 유엔과의 협력 문제 등 여러 문제와 연결돼 있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76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 완전한 평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재미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지난 21일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전광판에 ‘한반도 평화법안’과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이 거짓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광고영상을 공개하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궁극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자유에서만 올 수 있다. 북한정권에 책임을 묻고 북한주민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광고는 문 대통령의 76차 유엔총회 참석에 맞춰 21일 낮 12시부터 다음 날인 22일 밤 11시 59분까지 게시됐다.

화이자 CEO도 “1년 내 일상 복귀”

백신 제약사인 화이자의 엘버트 볼라 최고경영자가 1년 내 일상생활 복귀를 전망했다. 백신 보급이 높아져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코로나19 변이는 꾸준히 발생할 수 있지만, 백신 추가 접종 등을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볼라는 26일 ABC뉴스에 출연해 “1년 이내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 복귀에는 주의 사항이 있다”며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코로나19 새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나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볼라는 “나에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최소 1년을 지속하는 백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례 예방 접종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볼라는 다만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데이터를 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 전망과 일치한다. 방셀은 지난 23일 스위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1년 안에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한다. 코로나19는 결국 독감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추가접종이 1-3년마다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1. 신광희(1878-1941)

신광희(申光熙)는 1878년 윤3월 17일에 경상북도 문경군 가동면 작천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소년시대에 시위대 하사로 근무하면서 영문의 부기를 정리하였는데 러일전쟁 이후 광무 구식 군대가 축소되고 폐지되었다. 1904년 12월부터 1905년 1월까지 지활성신문에 7차례에 걸쳐 게재된 멕시코 한인 이민자 모집 광고에 속아 그는 멕시코 노동이민선에 올랐다.

1905년 5월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살리나 크루스 항에 도착한 신광희는 예녜깁 농장에 도착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 노예처럼 혹사당하면서 노동에 종사했다.

4년 계약은 1909년 5월 12일이었으나 김제선, 김윤원, 이근영, 황면주, 방경일, 조병하와 함께 신광희는 농주에게 속된 80페소내지 100페소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어 메리다로 진출했다.

신 한 민 보 1909년 5월 26일자에 실린 신광희가 보고한 다음의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 보고서에서 그의 목회자 됨을 읽을 수 있다.



신광희

“유카탄에 재류한 동포의 4년간 압제 중 경과한 일은 말하고저 하매 이가 시고 빠가 저린지라. 이곳에 가장 권세 있는 자로 칭하는 사람의 농장은 명 말 '야스체라'하는데 이 농장에서 동포 70여 명이 압제를 받음도 다른 곳보다 더욱 심한지라. 동포 중 장봉환, 정춘식, 이수근 3씨는 본래 동포를 사랑하는 마

고로 무리한 압제를 행함이나 이같이 억울한 일은 하늘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땅에 호소하여도 대답이 없는지라. 일반 동포가 다만 억울한 한을 품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사 하행으로 우리 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황사용, 방화중 두 위원을 파송하여 4년간에 거의 죽게 되고 근근이 산 천 여명 동포를 위문할 차로 수록 원정을 발섭하여 건너오던 처음에 1번으로는 4년 동안 인간 지옥에 참혹하고 초를 당하던 마음을 활기로 고동하여 국민회의 대 단체를 성립하며 일면으로는 장, 정, 리 3씨의 억울히 피수함을 경악하여 수차 거소하되 농주의 세력을 당할 수 없는 고로 목화 백원을 주고 법률사 1인을 고용하여 2주간을 연속 재판 결과로 3인이 무죄 배방된지라. 방석된 3인의 감각한 마음은 이로 측량할 수 없거니와 이곳 1천명 동포의 용약하여 치하하는 수리가 가득히 높았으니 두 위원의 파송됨이 어찌 천우조항이 아니리오. 그러나 또한 두 가지 무리한 일을 아직도 피지 못함이 있으니 현금 일반 동포가 기한이 지내어 모두 자유를 얻었되 어떤 농장에는 부모 없고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3년 동안을 더 역사를 시키겠다하여 영영 노예를 삼고저 하는 일이고. 또는 이곳 농장이 모두 20여 처인데 기한이 차서 나올 때에 매명 1백 원씩 수로금으로 준다는 계약대로 시행한 농장은 겨우 3처 농장밖에 없고 그 여 다른 농장은 계약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저 하니 이상의 두 가지 일은 불가불 크게 송사하여 귀정하기로 방금

1910년 12월에 메리다에서 김제선과 정춘식 등 40여명과 함께 신광희가 프론테라로 이주하면서 그는 국민회에 집중했다. 프론테라의 농주와 5년 계약을 맺고 가옥을 건축하고 토지를 개간하였으며, 자치제를 이루어 지방회 이름을 신한동이라고 하였다. 신광희는 대표로 선정되었고, 동장에 정춘식, 서기에 김기창, 재무에 박국천, 찬조원에 김윤원, 김태진, 박국천 등을 선출했다. 이듬해 12월에 신한동 지방회를 조직할 때 신광희는 김성민과 함께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그런데 과테말라 고지에서 흘러내리는 그리할바 강의 홍수로 한인들이 흩어졌다.

신광희는 오학기나 지방으로 이주했다. 1912년 5월에 7.80명으로 일신학교를 설립할 때 신광희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감독에 서현우였고, 교장에 김윤원이었다. 그런데 1년도 못되어 한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1914년 북미지방 총부회장 후보에 조성과 더불어 신광희가 대의회에서 천거하였으므로 이 때를 전후하여 미국으로 이주했다. 북미지방의 월로즈에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하였고, 북미실업주식회사에 가입하였다. 1920년에 대한인비행가 양성회가 조직되면서 총재에 김종립이, 재무에 이재수와 함께 신광희가 활동했다.

이듬해 3월에 월로즈에서 맥스웰, 윌리엄스, 치코에 거주한 남녀 동포 82명이 모여 독립선언 제2회 기념 축하식이 있었다. 광채 있는 태극 기장과 기화요초로 단장한 가운데 지방회 회장 임준

한인 명단 26명 중 다수가 맥스웰 한인 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1920년 11월에 신한민보에 국민회 중앙총회의 감사장이 게재되었다. 국민회 중앙총회에 회비를 전부 납부한 김종립, 임준기, 김승길과 함께 신광희도 포함되었다. 북미주에 거주하던 때 신광희의 기부는 폭넓었다. 때마다 국민 의무금을 냈고, 양성소 중수를 위하여 기부하였으며, 국지일 기념 적립금에 기부했고, 전시 주한인의 금력에 전조했었고, 독립연에도 기부했고, 한인 비행기 학교에도 기부했으며, 내지 수재 구제를 위하여 기부했고, 내지 기근 구제를 위하여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장서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부했고, 김영수의 자비 마련을 위하여 기부하기도 했다.

1924년 1월에 신광희는 나성으로 이주했다. 그해 나성에서 동지회 교회가 개척되면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등 3교회가 있었다. 이 중 한 교회에 다녔을 것이다. 나성에서도 그의 기부는 의무금 뿐만 아니라 기근 구제금과 내지 수재금으로 계속되었다.

신광희는 1935년경에 달라노로 이사하고 수박농사를 하였다. 김 탁 목사가 목회하던 달라노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1936년 9월 19일 하오 8시에 김 목사 사택에서 태극클럽이 모였다. 이날 김병연, 김성권, 조윤림, 윤용호와 함께 신광희가 헌사를 담당했다. 태극클럽은 1934년에 조직된 2세 모임이었다. 그의 기부는 이곳에서도 의무금, 적립금, 삼일절기념, 의연금, 분교 수재 구제금, 행령 참가 특연, 임시정부 후원금, 중국 항일전쟁 동정금, 건축의연금으로 이어졌다.

1939년 4월 30일 하오 7시에 임치호의 주택에서 동갑내기 임치호와 함께 신광희의 회갑잔치가 있었다. 이날 임치호에 이어 신광희는 '나는 어찌하여 살아 있을 동안에 동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생각할 뿐이옵사'면서 감사하였다. 임치호 부인이 음식을 갖추고 오찬을 같이하는 때 금잔을 드러 남산수를 빚었다. 이날 신광희는 만년에 일신이 소슬한 가운데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신광희의 묘비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베이커스 필드 양로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신광희는 1941년 7월 30일에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8월 1일 하오 2시에 김 탁 목사가 주례하여 발인식을 거행한 후 달라노 공원묘지에 하관했다. 동해수부흥 연이 '신광희 군의 시세를 슬퍼함'이라는 시를 읊었다. 갑옷을 벗은 몸에/베옷이 처량하고/ 창해에 남긴 백발/금실도 끊어졌다/ 고향의 상창대회를/못잊노라 하더니. 대한민국정부는 2015년에 그에게 애족장을 수여했다.

damien.sohn@gmail.com

메리다 교회 지교회인 와하케냐 농장 한인예배 인도 1914년 미국으로 이주, 애국운동 한글교육 등 앞장

음의 간절하여 농주의 학대를 종종 거리책지하고 무리한 일을 저항하다가 수사 전에 기한이 임박하고로 이왕 계약대로 수로금을 매인 백원씩 출금하라고 농주에게 엄히 말한 즉 농주는 이 세 사람을 두었다가는 나중에 말썽거리가 될 줄로 알고 기한 전에 내어쫓는지라. 타인 같은데 밖에 나온 것만 다행으로 알 터이로되 이들은 본래 동포를 사랑함이 특별할뿐더러 쫓겨나올 때에 같이 있던 동포를 상면도 못하였으니 필경 저들은 우리 3인이 농주에게 무리한 일을 당하여 육에 갇혔거나 험한 곳에 유배를 당하였을 줄로 알지니 한번 가서 만나보고저하나 농주가 허락지 않는 고로 하루 밤에는 이 세 사람이 작반하여 40리 밖 되는 곳에 가서 동포들을 간신히 만나보고 눈물이 앞서서 정회를 다 퍼지 못하여 날이 새고저 하매 즉시 돌아왔더니 이것은 쥐도 새도 알지 못하거늘 어떤 자가 이 일을 농주에게 고발하여 장, 정, 이 3인을 즉시 감옥에 착수한지라. 전설을 들건 데 이들이 1년이나 혹 2년 징역에 처한다더니 대개 농장규례가 자기 있던 농장에는 마음대로 무상출입하는데 이같이 무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곳 법관이 모두 농장주인인

협의중이온데 이곳 법관과 법률사가 모두 농주의 세력 밑에 종사하는 자들이고로 송사하기가 매우 극관하오다. 그러나 우리 동포들은 일심협력하여 기어이 재판관 일일킬 작정인데 우선 장봉환, 정춘식, 이수근 3씨의 일로 재판 비용을 연조한 제시는 여좌하오다... 이상 93원 35전." 그도 1원을 기부했다.

1910년 6월에 메리다 지방회가 유카탄에 현류하는 동포를 원동으로 이접기 위하여 공동합회사를 조직하였을 때 감독 정춘식과 서기 김기창과 함께 재무에 신광희가 선임되었다. 유카탄에 있는 동포 전체가 매 주일에 1원씩 동맹 저축하였고, 장차 원동으로 가는 선비를 교육하기 위하여 본 회관 안에 교실을 마련하고 교사를 선정하였는데 방한규, 박상오, 이희성, 김영준, 김성준 그리고 박순석이 등록하였고, 교사에 신광희였다. 그는 분교 역사, 지리 등을 가르쳤다. 신광희의 와하케냐 농장 교회 목회는 프론테라로 이주하던 1910년 말까지 약 2년간이다.

국민회

기의 개최에 이어 일동이 애국가를 부른 후 강영문이 기도하였고, 사회자 임준기가 취지를 설명한 다음에 신광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후 유년 학생이 노래하는 가운데 일동 국가 경례시, 강영문의 임시헌법 낭독, 임헬렌과 임혜솔의 찬가, 송덕용의 축사낭독, 임보배의 강도 참가사, 전명영의 연설, 김대연의 음악, 최병익의 '정의의 희생' 연설, 김일리스와 최병익의 경축사, 김종립과 송덕용의 '국민개량주의 실천'에 관한 토론, 유년학생의 찬가 그리고 일동의 삼호만세로 마쳤다.

이즈음 신광희는 맥스웰로 이주했다. 1922년 12월에 맥스웰 지방회가 임원을 선출할 때 회장 윤용호, 부회장 양순진, 서기 송덕용, 재무 송이균, 법무 임치호, 실업부 마춘봉, 구제원 김계선, 대의원이 암과 함께 신광희는 학무로 선출되었다. 1923년 11월에 있었던 국민회 맥스웰 지방회에서 그가 법무로 선출되었다. 1924년 1월에 보고된 윤용호, 이 암, 송이균, 양순진, 송덕용, 이진섭, 김장현, 박용성, 마춘봉, 임선봉, 김계선, 심삼옥, 류명선, 임지성, 박영순, 이재수, 임치호, 송옥균, 한성준, 맹정희, 강대근, 이성배, 양대진, 임이재, 이영서, 등 맥스웰 지방

와하케냐 농장 예배 인도자

메리다에서 김제선과 함께 신광희는 1908년 10월 5일에 교회를 세웠다. 그는 와하케냐 농장에서 한인들을 모아 주일날 예배를 인도했다. 메리다 교회가 모교회였다면, 노동현장에서 모인 교회는 지교회에 해당했다. 이외에도 까만갑첸 농장에서도 교회가 있었다.

채등진이 1908년 9월에 치와와로 이주하였는데 미국 상항의 공립협회로 연결되었고, 이근영의 청탁으로 1909년 4월 3일에 황사용과 방화중이 견목위원으로 파송 받아 그달 18일에 바로그레소 항에 도착했다. 황사용은 국민회 지방회를 설립하고, 방화중은 교회를 설립할 목적이었다.

1909년 5월 10일에 70여 명의 농장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메리다에 국민회 지방회가 설립되었고, 가입한 회원 305명중 신광희도 있었다. 그날 신광희는 서기에 선임되었다. 그 외 임원은 회장 이근영, 부회장 방경일, 총무 및 재무 김윤원, 학무원 황면주, 법무원 조병하, 구제원 김제선 그리고 평의원에 김구현, 최정식, 이근하, 이국빈, 유진태, 김대선, 김성민, 김태진 그리고 박선일이었다. 서기 뿐만 아니라 그는 국어교사가 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평일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9: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7779 / facebook.com/jer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20 영어(영소:KOC, 침례침례단)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전 2:30 Tel: (213)559-7728 (전화 박스 겸용),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월요일: 오후 3: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엘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Manhattan Pl,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전파선교회와 협력하는 상담사역 (영-국) 오만인사-모호사(400명) 사역대상: 1. 여학생사역 2. 교회 중심도 사역리더 3. 목회상담 4. 가정사역리더 5. 영성사역 6.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탁기도실: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8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Tel: (714)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stoneivm.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수요일모임: '어성경' 읽어주며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언제 에덴동산(천국)에 들어가는가? (5)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GPS센터 대표)

⑥한 이레에 전 삼년 반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두 증인)에게 성
전 뜰 안에만 측량(목회)한 1260일 동안 굶
은 배운을 입고 예언(목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계11:1-3).

⑦마지막 한이레의 후 삼년 반
후 삼년 반에는 이방인에게(적그리스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계
11:2). 그리고 짓밟히는 끝은 성도의 권세
가 다 깨지기 전까지(단12:7) 견디는 자만
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후 삼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법을 변제하므로 제사
를 급하고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
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때
(단9:27) 이스라엘인들의 남은 자의 마지막
구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때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이 이뤄지며 이방인들의 구
원의 수는 중만한 수가 잘 때입니다(롬
11:25).

⑧69이레 후와 70이레 사이 공백기
70이레 중 69이레 후와 70이레까지는 큰
공백기가 있는 것을(도표4)에서 볼 수 있
습니다. 예수님이 39이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단9:26)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

단 7:20 말씀에 의하면 강성한 세 나라
가 퇴출되는 즉시 한 나라(70이레)가 온다
고 예언하였는데 현재 강성한 한 나라 영
국이 2020년에 퇴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
성한 두 나라가 퇴출되면 칠십이레가 시작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69이레 후와 70이레 사이
에는 이스라엘인들의 형벌 시기입니다. 그
형벌은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후에 겻세마
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군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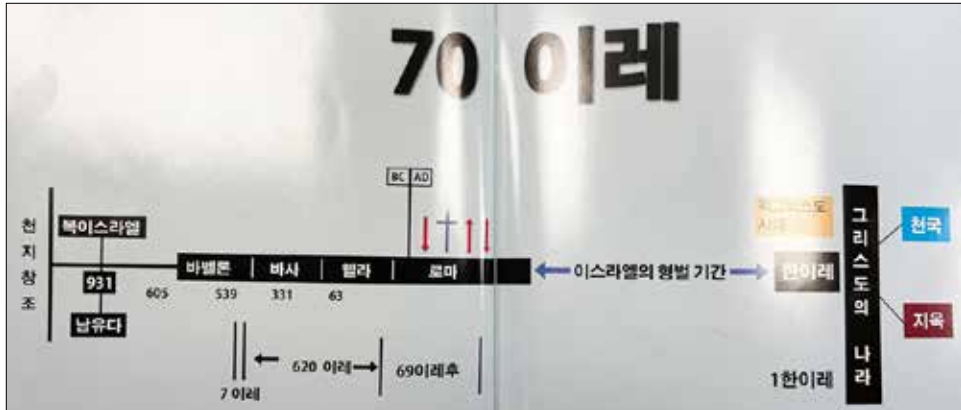


도표4

이스라엘 민족이 그 형벌의 시간이 끝나고
있음을 그 예언서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표4).

이스라엘인들은 1948년 5월17일에 영국
에 의해서 잊어버린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이스라엘
이 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세
워져서 잎사귀가 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
신다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습니
다.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2000년 동안의
형벌의 시기가 지나고 한이레가 가까이오
고 있으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박한 시기에 살고 있습
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32 무화과나무
의 비유도 거의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그
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적그리스
도의 공격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지 준비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
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삶은 에덴동산의 회복 의미

졌지만 그 다음 한 이레(70이레)가 오지 않
고 있습니다.

70이레가 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2000년
이 지나도 한 이레가 언제 될지 알지 못합
니다. 그러나 다니엘 2장, 7장, 9장, 12장을
읽고 계시록을 읽으면 언제 한 이레가 오
는지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24) 70이레 기한을 계시된 말씀이며 69
이레 후부터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이 성경적 역사는
2000년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신약의 역사는
2000년 + 알파입니다. 이 알파의 기간
은 이방인들의 기간입니다.

다니엘 7:20 말씀같이 열 왕 중에 세 나
라가 퇴출 될 때 한나라 즉, 70이레가 시작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표4를 참
조해보면 70이레 공백기는 이방인의 시대
가 끝날 때(롬11:25 "형제들이 너희가 스
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는 이방인의 중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들에게 불참해 대제사장 집에서 심판 받은
후에 빌라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었
습니다. 이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
가 없으므로 몇 대를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하니 유대인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 때 빌라도
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그 죄를 누가 감
당하리오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죄를 나
에게 돌리든가 내 후손들에게 돌이고 예
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마27:25)
원성들이 높아 민란이 두려워 빌라도가 예
수를 그들에게 넘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였습니다(도표4).

그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공
백 기간은 마태복음 27:25 말씀에 형벌의
기간입니다. 그 형벌은 AD 70년에 디도장
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민
족이 흩어지고 2차 대전에는 많은 유대인
들이 학살을 당하며 국가를 잊어버린 민족
이 되어 수많은 고통의 형벌을 받고 있습
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32
말씀과 같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만인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영원한 천국(에덴동산 회복) 계20:4,6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
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
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과”(계20:4).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
20:6). 아멘.

계시록 20:1-6 말씀은 영원한 천국이 이
뤄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
여 다시 재림 하실 때까지 사탄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무지경에 잠고 그 나
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는 시간이 예
수님 재림하시는 시간이며 순교자와 짐
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
들이 살아서(첫째부활) 예수님이 재림 때
부터 천국에 삶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9면으로 계속)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깊고도 오래가는 행복

혹독한 일상에 지쳐 있는 우리네 몸과 마음에 잠시 단번
가 다녀간다. 어느 지역들에서는 물난리로 그야말로 난리
인데 말이다. 나라도 교회도 내 삶에도 이제는 새로운 계
질의 바람이 불어와야 할 듯하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좋아하는 색깔
도 냄새도 소리도 다 달라서 사람은 이미 자기 속에 있는
것만을 밖에서 찾는지도 모른다. 늘 갖대로운 판단하고 생
각했던 생각을 넘어서 무한한 생각과 세상이 있는데 말이
다. 그러면서 늘 거지처럼 부족하다고 없다고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이 병이 들어서이리라. 사람들은 그런 자기 속을
들어다보기가 두려워 자꾸 바깥의 비리만 들춰내나 보다.
사실은 저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건 아닐까.

우리 인생에서 더 깊고도 오래가는 행복은 무엇일까?
두 사람의 가슴이 열려 공감의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이 개입하신 일이 아닐
까.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길 공간을 조금씩 넓혀드
리면 자꾸 자꾸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 내 안에 깊고도
오래가는 행복이 지속되리라.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위해 큰 일을 해내
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취의, 성공의 노예가 되리. 그
런 삶은 실형 우리가 꼭대기에 오르더라도 그에 따라오는
허탈감과 공허감은 만만치 않으리라. 그냥 자기 일이 좋아
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나의 취미가 되고 나의 놀이가
되어 하나로 돌아간다면, 바깥사람들의 평가에도 목을 매
지 않고 내 안에 깊고도 오래가는 행복을 맛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

늘 영약하고 약삭빠름으로 한탕 잡은 결과만을 쟁하고
기뻐하는 우리네 알팍한 삶이 아닌가. 사실은 그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하네 말이다.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 과정 내내 행복한 그야말로 더 깊고도 오래가는 행복
속에 살아가지 않을까.

허둥대고 실수하며 중심 없이 살다가 내면을 정리하고
고요함속에 툭툭 한 자루를 켜다. 돈이니 명예니 성공이니
하는 걸치레의 옷을 벗어버리고, 머릿속에 가득 찬 무수한
거짓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덮으며 훌거분한 몸과
마음으로 평정을 찾는다.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린 내 영혼을 만나니 내 안에서 깊고
도 오래가는 행복이 다시 울라움을 느낀다.

그렇다. 사는 게 고단해도 내일 해가 뜰 것을 우리는 안
다. 이렇게 우리 속에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여유가 없고
각박하지만, 그리고 아직도 우리 환경적으로 더 나아진 것
도 없지만 그냥 오늘도 해가 뜬다는 것... 내가 내 옆에 있
다는 것... 너를 위한 가슴 저린 기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다 이
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떨어졌다는 것... 그
래 그것이면 충분히 더 깊고도 오래가는 행복 속에 이
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3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모임: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30분) 주일 2부 오후 1:45(30분) 주일학교 오후 1:45(30분) 청년예배 오후 3:15(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금) 금요기도회: 화, 목, 금, 토, 일 금요영양 기도회: 매월(월요일)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살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듯합니다. 물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귀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플라톤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특별한 감사의 조건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세대에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철학자다운 그의 특별감사조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짐승이 아닌 사

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철학의 도시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플라톤의 감사조건을 오늘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이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문화인으로 살고 예수님을 만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마16:26).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고 존엄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소중한 인생의 살아가는 그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에 살길이 막막하여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지구촌에 부지기수입니다.

미국 국경에 몰려오는 수많은 남미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 그 나라를 빠져나가려는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길을 찾아 유럽으로 몰려드는 아프리카 난민들

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서 살길을 찾아 헤매는 큰 무리들의 절규를 듣습니다.

동시에 크고 작은 질병과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살 길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절망적 상황을 벗어나려는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유사이래 최고의 발전된 문명 과학의 시대를 살게 하지만 동시에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신음하고 절규하고 낙담하고 방황하고 포화하고 괴로워합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아갈 길이 막혀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와중에도 우리들에게는 살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선진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사람 죽으란 법은 없다”고 옛 사람들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살아도 살아갈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피할 길을 내사”라는 말씀은 살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길 곧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국가나 민족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면 반드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와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나훔1:7).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에 직면케 하시듯 말입니다. 모세의 영도를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없는 홍해바닷가에 당도했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이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강한 동풍으로 홍해 바다

에 대로를 만드셨습니다. 살길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없는 곳에서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인간적으로 길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사람에게 길은 없게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cyd777@hotmail.com



KAPC 제69회 서남노회에서 권영일 목사와 유호석 목사가 노회가입을 위한 선서를 하고 있다

KAPC 서남노회 새 노회장 김기봉 목사 제69회 정기노회, 권영일 유호석 목사 노회가입

미주한인장로회(KAPC) 서남노회(노회장 민중기 목사) 제 69회 정기노회가 9월 21일 충청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줌으로 개최했다.

민중기 노회장 사회로 진행된 노회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절차보고했으며 김기봉 목사(충현선교교회)를 신임 노회장

으로 지명했다.

이어 서기보고, 상비부 사업 보고, 청원건 토의, 신안건 토의로 이어졌다.

이날 청원건은 세리토스장로교회의 권영일 목사와 유호석 목사의 노회가입을 놓고 심사를 했다. 심사결과 권영일 목사는 노회가입이 허락이 됐

며, 유호석 목사는 장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에 대해 예장통합과 KAPC의 신학적 차이가 있지만 유 목사가 학부는 종신대학교에서 다녔으며 KAPC 신학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에 KAPC 개혁장로회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정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노회가입이 허락됐다.

한편 노회가 열리기전 김중환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다니엘정 목사 기도, 민중기 목사가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출15:22-2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민중기 목사 집례로 성찬식 거행이 거행됐으며, 지교회와 권영일 목사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박규성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이날 노회는 오후 유성국 목사(가스펠투울 전도센터)가 ‘전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박준호 기자)



예장 국제총회 목사 안수식이 은혜한인교회서 열렸다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되겠다” 예장 국제총회 목사안수식 손영락 등 8명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가 주관하는 목사 안수예배가 9월 25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박병섭 총회장 집례로 열린 안수식은 서약, 안수기도, 착의식, 선포로 이어졌으며 은혜한인교회 성가대가 특송을 불렀다. 이어 안수증 수여, 꽃다발 증정으로 있었으며 김광신 목사(국제총회 증경총회장, GMI 총재)와 한기홍 목사(국제총회 증경총회장, GMI 부총재)가 권면을, 최홍주 목사(국제총회 증경총회장, 예브리데이교회)와 신승훈 목사(국제총회 증경총회장, 주님의영광교회)가 축사를 했으며 손영락 목사가 답사

했다.

손 목사는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주셔서 은혜롭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로 사역에 대한 기대와 감격은 벅차고 크다”며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크다. 선배목사 발자취 따라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복음전파에 전심을 다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수식은 박모세 목사(마이애미 임마누엘선교교회) 축도로 마쳤다.

한편 안수식 전 김종욱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 사회로 열린 예배는 최규남 목사(그레이

스미션대학교 총장)가 대표기도 했으며 신승철 목사(얼바인 은혜한인교회)가 성경봉독하고 박병섭 목사(샌디에고 사관교회)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마20:1-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병섭 목사는 “주의 종으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 사역하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든지 있게 된다. 사역을 통해 내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총회장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바란다. 사랑하면 무엇이든 쉬워진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듯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목사로 안수 받은 자들은 다음과 같다.

△곽형일(글로벌교회) △손영락(은혜한인교회) △엘리아한(은혜한인교회) △켄리 송(주님의영광교회) △스케빈리(은혜한인교회) △스케빈이(예브리데이교회) △라이언 구(IGM 서울교회) △사라박(마이애미 임마누엘선교교회).

(박준호 기자)



복음통일에 관한 간담회 및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임현수 목사 “탈북자 통한 북한선교” 강조 세기모 미서부지부 등 복음통일 간담회 및 기도회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이하 세기모, 회장 김영구 목사)와 기드온동족선교회(대표 박상원 목사)가 주최한 복음통일에 관한 간담회 및 기도회가 20일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임현수 목사(큰빛장로교회 원로)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방북이 불가능해졌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방북을 통한 선교는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전략은 3만4천명의 탈북자들을 통한 것”이라고 했다.

임 목사는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갈 수 없지만 자기 발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조차

전도하지 못한다면 북한 복음화는 요원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탈북자를 찾아내서 끝까지 돌봐주는 것”이라며 “탈북자들 가운데 사기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누군가 받아줘야 한다”고 독려했다.

임 목사는 “통일은 조만간 갑자기 올 것인데 통일된 이후에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면 늦게 된다”며 “한국 교회가 통일 이후를 내다보며 탈북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통일 후 북한 복음화에 귀

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탈북자들 중 신학생들이 많이 있다. 목숨을 걸고 자유세계로 넘어왔기에 북한에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학생도 있다. 탈북자가 성경 100독은 기본이고 300독한 자도 있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았기에 북한선교를 후원해야 한다. 300명 정도 사역자가 있다. 그들이 목숨 걸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복음통일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구 목사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박세헌 목사(세기모 미서부지부 사무총장)가 개회기도했으며 임현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강태광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한기홍 목사(미주 CBS-TV대표)가 대표기도,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가 환영인사했으며 최학량 목사(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LA지회 회장)가 축도했다.

2부에서는 김학송 선교사가 하와이 코나에서 열리는 글로벌복음통일 선교대회에 대해 소개했다.

(박준호 기자)

언제 에덴(천국)에... (8면에서 계속)

1) a thousand years (오랜 시간)

④계시록 20:2절에는 a thousand years(오랜 시간)는 사탄을 잡아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무지개에 가두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⑤계시록 20:3절에는 a thousand years(오랜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감금하였다가 후에 잠시 놓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⑥계시록 20: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⑦계시록 20:4, 6절 말씀에는 a thousand years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부터 시작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reigned

계시록 20:4, 6절에 reigned(다스린다), a thousand years가

두 번 NIV, 킹제임스에 나오는 데 이 말씀은 다스린다는 뜻이며 창세기 1:28절 reigned(Dominion)의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4, 6절 말씀은 첫째 부활에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다스린다는 2차 부활에 살아서 축복(reigned)을 가지고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은 영원하며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에덴동산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창2:8)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축복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축복(창1:28)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언약(창2:17)을 세웠

으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창3:6).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창3:15) 구원하신다 하시고 가족을 만들어(창3:21) 입혔습니다. 이 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세상으로 쫓아내셨습니다(창3:24).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축복을(창1:28)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그 무엇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무기력하므로 그 수많은 고통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롬6:23)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창3:15) 인간을 다시 에덴동산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andcny1@g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오세훈 목사) 상임교육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KAPC 목회와 신학 포럼이 10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3주 화상으로 열린다. 강사는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원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석좌교수)로 주제는 “박영선 목사의 설교 이야기: 성경, 믿음, 성화와 교회.” 포럼은 미동부시간으로 10월 4일(월) 오후 8-10시, 5일(화) 오전 9시-10시30분과 오후 8-10시, 6일(수) 오전 9시-10시30분에 진행된다. 오전 세션은 75분 강의와 15분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오후 세션은 90분 강의와 30분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문의: 박성일 목사(spark@wts.edu)

KAPC 뉴욕지역 5개 노회 연합 세미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오세훈 목사) 산하 뉴욕지역 5개 노회 연합 세미나가 10월 11일과 12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고대 근동학”이라는 주제로 강사는 김남철 박사(구약학 교수).

▲문의: (718)886-4040

새회장 윤명호 목사, 부회장 홍인석 목사

뉴저지한인목사회 제12회 정기총회, 회칙개정안 통과

뉴저지한인목사회가 9월 27일 제 12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윤명호 목사, 부회장에 홍인석 목사를 선출했다. 또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전 11시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에서 열린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의로 진행됐다. 회장 이의철 목사는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회원들의 후원으로 풍성한 재정으로 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윤명호 목사 인도로 기도 이창성 목사(서기), 성경봉독 김동권 목사(음악봉과), 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이정환 목사(교협회장), 헌금기도 박인갑 목사(목회분과), 광고 김주동 목사(총무), 축도 김정문 목사(전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환 목사는 “더욱 그리하자”(히10:23-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히브리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며, “고난이 있을 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23절), 잘 안될 때 격려하라(24절), 좋은 습관을 가지라(25절)”고 말하고 “목사회가 지난 1년간 잘 달려온 것처럼 믿음의 선행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의는 회장 이의철 목사 사회로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신입회원 가입인준, 전회의록 낭독, 사업 및 행사보



뉴저지한인목사회 제1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고, 산하단체장 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로 진행됐다.

신입회원으로 강종식 목사(한길교회)를 인준했으며 남성목사합창단, 여성목회자합창단, 목사축구선교단 등이 보고를 했다.

뉴저지목사회는 지난 회기에 △청교도 미국이주 400주년 기념 영적 대각성 부흥회와 스펀데믹 시대와 교회변혁 세미나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아틀란타 아시아계 혐오범죄 희생자 추모기도회(한인단체 공동 주관)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 △한인지역 5개 노회 관공서 방문(8개 한인봉사단체 연합) △떡국사랑나눔 행사(12개 봉사단체 연합)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또 △어려운 목회자 돕기 사랑나눔 운동 △은퇴목사부부 위로회 △회복을 위한 회원목사 위로회 △차세대 목회자 위로회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위로회 △뉴저지여성목회자합창단 위로회 △뉴저지목사선교구단 위로회 △뉴저지여성목회자 위로회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투병 목회자 8가정에 각 2000달러씩 지원했다.

재정은 수입 30,461.42달러, 지출 27,388.21달러, 잔액 3,073.21달러로 보고했다.

이러한 임원 및 감사 선출은 현 부회장 윤명호 목사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회장은 홍인석 목사(32회기 뉴저지교협 회장)를 추천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감사는 이의철 목사와 김종윤 목사가 추천으로 선임됐다.

윤명호 목사는 “지난 1년간

전 회장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많이 돌봐온 일을 보고 이번 회기에도 이 일은 계속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당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윤명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칙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회원: 제 4조(자격) 소속기관 발행 목사안수증명서를 제출하며(삽입) 제5조(의무와 권리) 최근 3년의 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삽입). 제6조(정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삽입).

△제3장 임원 및 조직: 9항 삭제(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고 재정 감사만 하도록).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0조 1. 회장은 현 부회장을 초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공천위원회에서 다른 회장 후보를 낸다. 2. 부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자를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공천위원회는 만70세 이전의 본회 전직 회장들로 구성하며 직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7장 산하 기관(기구로 변경). 이날 총회는 이의철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부회장 3파전...이준성 박태규 김명옥 목사

뉴욕교협 선관위 제 48회기 정부회장 후보자 발표



김희복 목사, 이준성 목사, 박태규 목사, 김명옥 목사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선관위원회(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지난 27일 제 48회기 정부회장 후보등록자를 발표했다.

후보 마감은 24일이었으며 이날 회장후보 1명 현 부회장 김희복 목사(주찬양교회), 부회장 후보 3명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장로교회), 박태규 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 김명옥 목사(뉴욕예은교회)(등록순)가

등록했으며 선관위는 등록한 4명을 모두 후보로 발표했다. 한편 감사는 후보등록자가 없어 총회 당일 현장에서 선출하게 된다.

뉴욕교협 정기총회는 10월 14일(목)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 청소년할렐루야대회에서 강사 김요셉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2021년 청소년할렐루야대회, 강사 김요셉 전도사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9월 24일과 25일 오후 7시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렸다.

팬데믹으로 지난해에 이어 현장엔 50명이 참석하락을 받았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찬양팀 리베라톤(liberatone.com)의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메시지는 뉴저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유스와 EM을 담당하고 있는 김요셉 전도사가 전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Close to Home”(시91). 첫날 강사 김요셉 전도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1994년 7세 때 이민)을 소개하며 “돌아온 탕자”이야기가 담긴 누가복음 15:11-32를 본문으로 “Return to the Father”(아버지께 돌아가라)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전도사는 “집은 안전하고, 사랑받고, 가치 있고, 보살핌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팬

데믹으로 2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그렇지 못했다”며 “팬데믹 속에서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혼돈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고립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집과 피난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에 서 멀리 떨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며 참석 청소년들을 도전하고 기도를 인도했다.

첫날 집회는 뉴욕교협 부회장 김희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 김요셉 전도사는 “Return to the Son”(마11:28-3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축도는 황영송 목사가 맡았다.

뉴욕교협은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를 위해 1만 불을 지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동노회 제89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동노회 제89회 정기노회

최진권 이승엽 목사인수식도 열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 제89회 정기노회가 9월 21일 오전 10시 뉴욕참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노회장 이규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부처리를 통해 △뉴욕성실장로교회 이길호 목사 시무 사면과 원로 목사 추대 △뉴욕성실장로교회 차석희 목사 위임목사 청빙 △뉴욕참교회(문덕연 목사) 최진권 목사 목사안수 및 교육목사 청빙 △전도부가 청원한 이승엽 전도사 목사안수 △뉴저지 임마누엘교회(장기수 목사) 교회이전 청원들을 처리했다.

시찰회 보고를 통해 뉴저지시찰은 총회장(오세훈 목사)이 참가한 가운데 직전총회장 조문휘 목사의 수고 위로모임을 가졌다고 보고했다. 뉴욕시찰은 중 화상을 이용해 시찰회 모임을 가졌으며 뉴욕삼자기교회(문신언 목사) 임직식을 하고, 10월에 뉴욕참교회(문덕연 목사) 장로 은퇴식과 12월에 주사리장로교회(정준성 목사) 임직식이 예정돼 있다고 보고했다.

또 제자삼노교회 안경수 부목사가 동남부노회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 받아 부임한다고 알렸다.

오전 11시30분부터는 목사안수식이 열려 최진권, 이승엽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최진권 목사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참교회에서 교육담당을 하고있으며 이번에 목사안수를 받고 교육목사로 청빙 받았다. 이승엽 목사는 BTS를 졸업하고 RCA교단에 속한 한인동산장로교회

이종삼 목사)에서 유스사역을 하고 있지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목사인수예배는 노회장 이규섭 목사 인도로 기도 신철웅 목사, 설교 이길호 목사, 서약 노회장, 안수기도, 공포 노회장, 권면 황상하 목사, 답사 최진권 목사, 광고 서기 문덕연 목사, 축도 김남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내년 2월에 은퇴하는 이길호 목사는 “목사의 사명”(행 20:27-3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의 3가지 사명을 전하며 “목사는 하나님의 전 뜻을 다 전해야 한다, 목사는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목숨을 바쳐 섬겨야 한다, 목사는 말씀과 눈물로 훈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하 목사는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영적 용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권 목사는 답사를 통해 “늦게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이는 수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여정을 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것을 하나님과 오늘 모인 성도들 앞에서 서약한다. 하나님께는 충성스러운 목사, 교회와 성도에게는 헌신하는 목사, 세상 누구보다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목사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예수의로나눔선교회 허재은 부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선교회원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 다해 충성”

건강플랜/생명보험 세미나, 지역교회부흥선교회 등 주관

건강플랜/생명보험 세미나가 28일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지역교회부흥선교회(대표 허윤준 목사), Good Life Mission, 예수의로나눔선교회가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 허재은 부사장(예수의로나눔선교회)과 서니김 디렉터(Fidelity&Guranty Life/American National Life, Senior Field)가 강의했다.

허윤준 목사는 “7개월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뉴욕교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예배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6:19-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허윤준 목사는 “아픈 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주셨다”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뉴욕교계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1983년 유학차 도미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 부름 받고 선배들의 목회 모습을 따라 31년간 새벽기도를 쉬지 않았고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으로 살았는데, 이번엔 아내가 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며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겠다”고 말했다.

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감사의 말씀 김정숙 목사(리폼드연합신학교 교무처장), 기도 채왕규 목사(뉴비전 청소년센터), 말씀선도 허윤준 목사, 특주 뉴욕크로마하프 연주단(단장 이진아 목사), 간증 및 인사 박태규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동북부지역 전체회장), 축하의 말씀 장규준 목사(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장), 특송 송금희 전도사, 헌금기도 마바울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권면의 말씀 전희수 목사, 축도 오태환 목사(예수의로나눔선교회 교문) 순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 이어 이만호 목사(뉴욕성신클럽 회장)가 사역을 위한 특별기도를 했으며 허재은 부사장과 서니김 디렉터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종태 목사(청지기부부합창단 단장)의 마감기도 및 식사기도로 마쳤다.

한편 선교회는 10월 19일(화) 랭커스터 성극 “퀸 에스터”를 관람한다. 회비는 65달러만 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718)637-1470 허윤준 목사, (646)354-8989 오태환 목사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9월 기도회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 9월 기도회가 9월 26일 오후 8시 중 화상으로 열렸다.

기도회는 명예회장 강현석 장로 인도로 대표기도 부회장 이계훈 장로, 설교 부회장 김태수 목사(“삼가 조심하여 실행하는 기도”, 벵전4:7-11)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손성대 장로의 인사말에 이어 합심 통성기도가 진행됐다. 기도는 뉴욕장로성가단 단장 김재관 장로가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뉴욕한인

장로연합회 회장 송윤섭 장로가 대한민국과 내년 3월에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정훈 간사가 코로나의 종식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9월 기도회가 중 화상으로 진행됐다.

및 경제부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기도했다.

부회장 마바울 목사의 마침 기도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쳤다.

(13면으로 계속)



세계선교교회 설립48주년 감사예배에서 교회청림을 축하하는 노래를 예배참석자들이 다함께 부르고 있다

하나님만 바라는 초대교회에서 배운다 세계선교교회 설립48주년 감사예배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설립 48주년 감사예배가 26일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재영 장로 기도도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창섭 목사가 '초대교회에서 배운다(행2:42-4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창섭 목사는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 공동체"라 설명하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신 공동체지만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모습은 교회가 세워 지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완전한 조직에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다. 교회는 불완전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초대교회 때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을 본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양을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우선시 했다. 사도들이 가르칠 때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었다. 그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놓아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동체가 든든히 유지될 수 있음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애를 때 그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다. 둘째 교제다. 교제는 자신이 가

지고 있는 걸 나누는 자발적인 헌신이다. 교제의 이유는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빈곤하게 살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통로로서 재산을 나누려고 했다. 그래서 교회공동체 밖의 사람들이 칭찬하게 됐다. 내 옆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에 주께서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세 번째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선교교회가 지난 48년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교회를 일구어가는 비결도 교회를 생각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선배의 기도덕분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바란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말씀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섬기고 나누는데 열심 기도로 동행하는 교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 후 김창섭 목사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으며 교회설립 48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창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영적각성집회에서 송태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리인생에서 주님만이 대안" 남가주사랑의교회 영적각성집회, 강사 송태근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2021 영적각성집회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9월24일부터 26일까지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쉐키나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허광장 목사 사회로 열린 26일 3부 예배는 박용규 장로가 기도했으며 호산나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서 송태근 목사가 '청지기 지혜를 배우라(눅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태근 목사는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과오로 사면 통보를 받았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청지기가 사면통보를 받고 나서 했던 깨달음과 행동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며 "첫째, 내 것처럼 썼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배워야 한다. 둘째, 다음 갈 곳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가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으며 대안을 갖는 인생으로 살았다"며 "우리 인생들도 주를 믿는다면 대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신앙인들은 대안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인생에서 주님만이 대안임을 알고 걸어가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인지송 재매가 특별연주를 했다. 이날 예배는 노창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행사후원 및 현장기부 약20만불 모금 한인가정상담소 제38회 연례기금모금 행사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엄)가 23일 LA 자연사박물관 야외에서 열린 제 38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인원수 제약으로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줌으로 동시 진행

됐다. 기금모금 행사명은 '라이즈 투게더(Rise Together)'로 최근 아시아인 증오범죄에 맞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이날 기부금 후원과 현장기부를 통해 약 20만 달러가 모금돼 한인가정상담소를 위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나성제일교회 13대 담임 김성지 목사 위임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랑으로 커뮤니티 섬기는 예수공동체로" 나성제일교회 13대 담임 김성지 목사 위임예배

나성제일교회 김성지 목사 위임예배가 9월 26일 오후 4시에 열렸다.

김성지 목사는 "나성제일교회 13대 위임식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성제일교회가 복음으로 세상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 섬기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나성제일교회가 이웃과 불신자들에게 열려 매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 복음과 사랑을 주는 교회, 복음은 사랑과 함께 흘러간다.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며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채워주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신앙생활이 기뻐 것이다. 나성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교회 목사가 되기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위임국장 미주서부노회 노회장 정갑식 목사 집례로 열린 위임예배는 안형석 목사가 기도했으며 권은석 목사가 성경봉

독 했다. 이어 정갑식 목사가 '바울의 목회이념(딤후1:12-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갑식 목사는 "성경 더 연구함으로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귀한 목회하기 바란다. 나성에서 지역사회를 커버하고 이민 사회 으뜸이 되는 교회되기 바란다. 김성지 목사와 성도들은 많은 사람 전도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 자람이 면류관 받아 쓰는 교인되기 바란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교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위임식으로 이어졌다. 위임식은 임직 받을 자와 교인들이 서약했으며 정갑식 목사가 김성지 목사를 본 교회 담임목사로 공포했다.

이어 증경노회장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와 고귀남 목사(멜리데교회)가 권면했으며 세계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나정기 목사와 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 이정현 목사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증경노회장 박재웅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핍선교회, 추석명절에 쌀 나눔 사역

핍선교회(대표 이훈우 목사)와 JC에프터스쿨(원장 김을리 비아)에서 고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니어들을 위해 쌀을 배포했다.

지난 9월 16일 선교회와 학원 스태프들은 3가와 유니온에 위치한 시니어 아파트를 방문했다. 시니어 아파트의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충이 부피와 무게 때문에 쌀을 구입하는 것임을 알고 쌀 70포를 준비해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배부했다.

핍선교회에서는 매년 선교사들을 후원해왔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가진 선교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로 하고 금번에 쌀 나눔 사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의: (213)924-3340

(이성자 기자)



시니어분들에게 쌀을 전달하는 핍선교회와 JC에프터스쿨 스태프들

매주 월요일 줌 기도회...매월 대면 개최키로 매주 월요일 줌기도회...매월 대면 개최키로

시드선교회(국제대표 박신옥 목사) LA지역 기도모임이 1년 6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지난 27일 오후 7시 올림피아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박선영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돼 기도 임태오 목사, 찬양 장한구, 설교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든교회 담임)로 진행됐다.

김현인 목사는 '위로의 사람들'(눅1:35-45)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받은 달란트와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동역함을 기뻐하신다. 창조도 구원도 영광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한사람 한사람을 부르셨다.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잉태소식에 매우 놀랐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엘리사벳을 찾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오늘 이 시드선교회 기도회는 꼭 필요한 모임이다.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동역자, 위로자의 삶을 살자.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그동안 시드선교회는 zoom으로 매주 월요일 기도회를 이어왔으나 앞으로 한 달에 한번 대면예배를 계획하고 있다. 시드선교회 관련 문의는 (562)926-4700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2021 남가주한인신학교 설교페스티벌

2021 남가주한인신학교 설교페스티벌이 10월 2일(토) 오전 9시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818)549-9191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추계부흥성회를 '카이로스 영적 세계의 원리들(고후4:18)'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고성준 목사(수원하나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0월 7일(목) 오후 7시30분, 8일(금) 새벽 5시30분, 오후 7시30분, 9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10일(주일) 오전 7시30분, 9시20분, 11시30분, 오후 2시다.

▲문의: (714)446-6200

선한청지기교회 설립3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설립 30주년 기념예배가 3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린다. 이날 3부 예배(오전 11시30분)에는 임직식을 갖게 된다.

▲문의: (626)913-6611

제2회 사모행진 하브루타 독서토론

엘피스가정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은 제2회 사모행진 하브루타 독서토론 모임을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줌미팅으로 갖는다. 강사는 이성준 목사(하브루타 코리아 대표/하브루타교육문화연구소 소장)이며 참가방법은 줌아이디 606 678 5318(비밀번호 1004)로 들어가면 된다.

▲문의: (213)700-9928



카페 시소 그랜드오픈 페스티벌에서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카페 '시소' 그랜드오픈 페스티벌

카페 '시소' 그랜드오픈 페스티벌이 25일 오후 6시 카페가 위치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열렸다.

권선희 씨 사회로 열린 이날 공연은 보컬리스트 임수연, 김민형, 프레이즈 핸드 팀, 랜디 라노 클라리넷, 보컬리스트 다니엘 김, 이윤우, 클라리넷 연주자 박미배, 테너 최원현, 피아니스트 윤경미, 수어 통역사

김은정, 색소폰 연주자 켈빈박이 출연해 가을 하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카페 시소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적 소통 능력과 독립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제5회 치매간병 전문인교육

소망소사이어티(이하 소망, 이사장 유분자)는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싸이프레스에 위치한 소망홀에서 제5회 치매간병 전문인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National Council of Certified Dementia Practitioners LLC.(이하 NCCDP)에서 제작한 영어 교재로 NCCDP 교육을 이수한 강사들이 한국어로 강의한 프로그램으로, 최경철(소망 사무총장), 남궁수진(소망케어교실 담당 팀장), 사라고(소망 이사, 정신과 Nurse Practitioner) 세 명이 강의 했다.

치매의 정의와 진단, 증상들과 진행과정, 약물요법 등에 대한 강의였고, 우울증, 망상과 환청환시, 가출과 폭력성, 수집 장애 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치매환자를 간병하는 방법들이 케이스별로 논의됐다.

14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엔 특히 치매 어머니가 사망할 때

까지 20년간 간병한 사람, 어머니 남편이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 본인이 경증 치매를 진단 받고 온 사람 등 도움을 청하는 구체적인 질문이 많았다.

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치매로 사망하지만 아직 치료약이 없는 치매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더 넓게 확산되고, 더 깊게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교육이었다.

교육비는 150달러,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소망에서는 치매예방교실 Youtube채널(소망소사이어티로 검색)과 소망케어교실(매주 수요일-대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에 소망 치매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이나 문의는 소망사무실(562-977-4580)이나 somang@somangociety.org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시드선교회 LA지역 대면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현인 목사.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SNS·유튜브 통해 왜곡된 종말론 급속 확산

이단·사이비 전문매체 바른미디어 내달 '라이트 콘퍼런스'

코로나19 이후 잘못된 종말론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번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 등을 인용한 사이비 종말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으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을 이용해 그 내용이 더 확장하는 추세다. 라영환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26일 "사람들이 불안할 수록 이익을 얻는 이들이 그릇된 종말론을 퍼뜨린다"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종말론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이 DNA를 바꿔 인간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백신 특허 번호가 666이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통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로 지정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일부 목회자도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한 선교단체 대표는 "빌 게이츠가 백신을 통해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민을 바른미디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종말론에 빠진 가족이나 친구를 도와달라는 상담이 부쩍 늘었다"면서 "종말론을 믿는 이들은 보통 현실과 이상 사이 괴리가 큰 사람들이다. 인생의 답을 찾고 싶은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디어는 이단·사이비 전문 매체로 이단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잘못된 종말론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이단·사이비는 종말이 오는 날짜와

도피처를 특정한다.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거나 성경에 나오는 상징을 현재의 사건들과 연관 지어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종말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종말론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디어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건강한 종말론을 논의하는 '라이트 콘퍼런스(Right conference)'(포스터)를 연다.

다음 달 28-29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유태화 백석대 신대원 교수, 고상섭 그사랑교회 목사, 조영민 나눔교회 목사, 박재은 총신대 신대원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접수는 구글 폼(forms.gle/TBM7CcvJJ4kKEmSc8)을 통해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

"군 세례자 양육 10년간 100만명 파송"

군종목사단·군선교연합회 '비전2030실천운동'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비전2030실천운동'으로 대대적인 군선교 활동에 나선다. 매년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이뤄지는 신규 세례자 6만명과 기존 세례자 4만명을 군인교회에서 양육해 10년간 100만명의 청년을 한국교회로 파송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목표를 세우고 군선교의 기본 사역인 진중세례, 양육

및 관리, 파송은 유지하되 변화하는 선교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진중세례 사역 외에도 사병부사관 장교 훈련소에서 열리는 '관문세례'와 각 자대에서 전도 후 세례를 주는 '제자찾기 세례'를 추진한다. 세례 받은 장병을 양육 관리하기 위한 군별 양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양육 받은 장병들은 전역 후 한국교회로 파송된다. 기존 출석 교회가 있는 장병은 재파송하

고, 출석교회가 없는 장병은 지역별로 청년 사역에 집중하는 거점교회로 파송한다.

군선교연합회는 "양육 받은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거점교회가 필요한 만큼 한국교회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거점교회는 청년 공동체와 전담 사역자가 있는 지역 교회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전국 교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비전2030실천운동'을 안착시키기 위해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을 대상으로 24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학생자살 예방하려면 통계오류부터 바로잡아야"

기독교사 모임 '좋은교사운동' 원인조사 필요 지적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자살 통계에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막으려면 철저한 자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기독교사들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은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서 발표한 '학생 자살 현황'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148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통계에 오류가 있어 청소년 자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 자살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자살 통계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선 6~18세 연령의 학생 중 1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같은 해 통계청의 연령별 자살통계에서 10~19세는 298명이었다. 좋은교사는 교육부 통계에 학교 밖 청소년과 조사 대상 연령,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2배 이상 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의 허술함도 쟁

점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면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좋은교사는 "초기 '원인 미상'으로 보고된 사건들은 이후 원인이 밝혀져도 자살 원인에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폭력, 집단 괴롭힘에 따른 자살로 밝혀져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원인 미상으로 잡혔다"면서 "원

평등법·차금법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교계 시민 대선평의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도 재차 10만명 넘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 교계는 각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며 두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8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박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법을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두

인 미상에 포함된 상당수는 폭력,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좋은교사는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교육부가 통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교가 사건 초기 교육부 등에 학생 자살 사안을 보고할 때 원인 미상으로 보고했다더라도 추후 원인이 확인되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평등법·차금법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교계 시민 대선평의회 열어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청원자는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이 시행되고, 이를 반대할 자유조차 없어질 것을 우려했다. 청원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 23일 해당 글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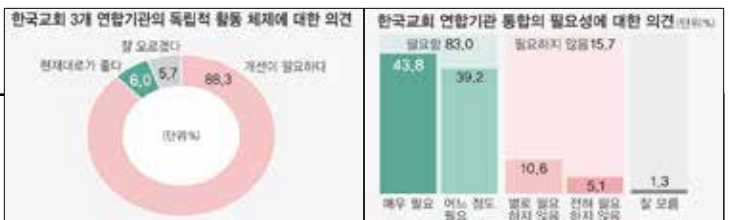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만 4일 만에 10만명 동의를 받았다"며 "그러나 박주민 의원이 이 의원의 원안과 비교해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 많은 반대를 우롱이라도 하듯 도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평등법 제정으로 발생할 여차별과 불공평, 불공정에 대해서는 꼭꼭 숨기면서 마치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장미빛 세상이 올 것처럼 포장해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각 지역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지난 9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있다.

회를 기획한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목사)은 "차금법 반대와 철회 운동은 정당, 정파, 종파, 진영, 지역을 초월해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를 위해 건강한 미래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기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전남지역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역시도 단위로 차금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공동 입장문을 채택해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다음 달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이어 간다.



사회 공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34.6%)와 '코로나 등 위기에 신속하고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다'(33.8%) 등도 많이 언급됐다.

연합기관 통합 관련 각 과제들에 대한 항목별 중요성을 묻은 결과, '이단 문제 해결'과 '연합기관 대표들의 의지'가 중요

관 통합 후 중점 과제에 대해선 '사회와의 소통 강화'(55.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다만 연합기관 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38.6%가 '가능성 없다'고 답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목회자의 나이가 낮

목회자 88.3%가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문제: '이단문제해결' 91.7%, '연합기관대표들 의지' 90.1%

할 수 있다'가 62.4%(2개 선택 가능)로 가장 많이 꼽혔다. '대

하다는 답변이 각각 91.7%, 90.1%로 가장 많았다. 연합기

을수록, 정치 성향이 중도·진보일수록 높았다.

한국교회 미래 북한선교전략은?

통일소망선교회 내달 7일·21일 온라인 등으로 발표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빌립 선교사)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한국교회 미래 북한 선교 전략' 발표회를 진행한다.

이 단체 대표 이빌립 선교사는 모시는 글에서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교회와 함께 걸어온 북한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북한 선교 전략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다"며 많은 기

도와 관심, 참석을 당부했다.

단체 사무총장 은성도 목사는 '코로나 이전 통일소망선교회의 사역과 의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장 하충엽 교수는 '현재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현황 분석'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통일소망선교회가 그리고 있는 미래 북한 선교

전략'을 소개한다.

통일소망선교회 이사장 박현식(대길교회 원로) 목사가 개회사를 전한다.

C채널 부사장 이성철 장로는 축사를, 안운용 온천교회 원로 목사는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선 예배에서 북녘교회연구원장 유관지 목사는 설교를, 정규재 강일교회 목사는 축도한다.

2차 행사는 다음 달 21일 서울 강서구 강일교회(정규재 목사), 온라인(Zoom)으로 동시 진행한다.

이주민 선교 사역전환 모색

KWMA, 평창포럼...다음달 4-5일 켄싱턴호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다음 달 4, 5일 강원도 평창군 켄싱턴호텔에서 '이주민 선교로의 사역전환'을 주제로 '평창포럼 2021'을 개최한다.

KWMA는 세계화의 주된 현상 중 하나인 '이주'에 주목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2019년 250만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500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 다문화가정, 유학생, 난민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다. 영역별로 KWMA 난민위원회 코디네이터인 김종일 아신대 교수, 오윤교회 이경욱 목사 등 강

사 9명이 강의한다. 강의 후 자유토론 시간엔 참석자들이 이주민 사역 로드맵을 모색한다.

준비위원장 안산새생명태국인교회 홍광표 목사는 "이주민 선교는 세계선교"라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는 선교 자원이다. 이주민 사역은 그들을 현지인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교계,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 많아"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 시민 대선평의회 개최

인천시 교계가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당부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합동으로는 2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기독교교회관 7층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전 인천지검 검사장·장로)은 격려사에서 "차금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황을 소개하며 차금법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한 채 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차금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혐오 발언'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성 소수자들이 이를 문제를 제기하면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끝까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차금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찬반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하는 민주사회에서 반대를 못하게 만드는 차금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이자 '성전환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 우남식 인하대 초빙교수와 학부모 대표가 나와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공청회 후 참석자들은 차금법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내면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한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법으로 옹호하며,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차금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구를 차금법 내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혼인은 양성애에 기초한다"는 헌법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금법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역시도별 시민 공정

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목회자는 15.7%였다. 담임목사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일수록 '필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더 컸다. 39세 이하 집단의 경우 69.2%가 연합기관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고 27.4%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3개 연합기관 통합의 긍정적인 점으로는 '대정부·대사회에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

목회자 10명 중 8명 "교계 연합기관 통합 필요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505명 설문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3개 연합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현 교회연합기구 체제에 대해 목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최근 시작된 교계 연합기관 통합 논의에 대한 목회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목회자 505명을 온라인 조사했다. 응답자 중 담임목사가 268명(53.1%), 부·교역·기관 목사가 237명(46.9%)이었다. 연령대 비율은 39세 이하가 16%, 40대가 32.3%, 50대가 31.3%, 60세 이상이 20.4%였다.

3개 기관이 독립적으로 활동 중인 현 체제에 대해 목회자 88.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가 좋다'고 답한 목회자는 6%,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5.7%였다. 부목사 등보다는 담임목사가, 젊은 목사보다는 나이가 많은 목회자

들이 현 체제를 불만스러워했다. 담임목사 중 91.6%가, 60세 이상 목사 중 97.1%가 현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한교총의 역할이 충분하르로 굳이 통합이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62.1%가 동의하지 않았다. 32.2%만이

동의했고 5.8%는 모르겠다고 했다. 예정통합 교단 소속 목회자 중 70.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다른 교단의 평균 반대율(59.9%)보다 높았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목회자 83%가 필요

목회자 88.3%가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문제: '이단문제해결' 91.7%, '연합기관대표들 의지' 90.1%

할 수 있다'가 62.4%(2개 선택 가능)로 가장 많이 꼽혔다. '대

하다는 답변이 각각 91.7%, 90.1%로 가장 많았다. 연합기

을수록, 정치 성향이 중도·진보일수록 높았다.

선/교/간/증 (6)

이하루 목사

짧은 지면에 제가 만난 윗마를 분들의 이야기를 모두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탈출 길이 막혀서 어린 딸과 함께 죽으려던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자살 결심을 돌이킨 이야기, 부모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혼쭐난 자녀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 받고 그 자리에서 귀신이 건 운명이 떠났다고 고백한 아줌마 이야기, 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노예의 삶을 산 엄마의 슬픈 이야기 등등...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만남과 사랑 이야기들입니다.

한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하고 희생을 해야만 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과 행복해야 할 어린

가 병원 한번 가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었습니다. 모르는 중국 사람이 저와 가족을 보고 조선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거리를 가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니 어느 날부터 제 어머니가 빠졌습니다. 밥 먹다가 손으로 어머니를 뽑아든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4개가 빠

고 다녔는데 늦게 돌아오는 평범한 날에도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아빠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살, 5살 아들에게 윗마를 사람이 집에 있다는 말을 하면 죽는다고 공포 영화보다 더 실감나게 공포를 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친구와 이웃의 따돌림 상처도 힘들었을 텐데, 무식한 아빠의 말과 태로도 상처받고 고통 받은 아내와

사역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새 밭의 피입니다(물론, 제가 그분들의 사역과 견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맞는, 제 시기, 제 상황에 맞는 그런 윗마를 선교를 하였다고 또한 믿습니다).

이러한 핍절한 삶으로 윗마를 사역을 뒤돌아보면 저는 몹시 슬프고 외롭고 아팠습니다. 주변한인들 보다 너무 여유 없게 산 것, 너무 희생을 미덕으로만 여



들처럼 연약해지고 가난하고 부족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여전히 제 자아를 살려 놓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그런 저의 모난 모습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지난 윗마를 사역의 모습을 거울삼아서 더 건강한 윗마를 사역자로 독일에서 저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제 간증을 미주크리스천신문에 간증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신문사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당신 안에서 욕심의 자아를 죽이고 살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윗마를 분들처럼 연약해지고 가난하고 부족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시기를 여유와 누림이 없이 슬프고 핍절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매일 길거리에서 파는 한화 50원짜리 죽을 1년여 동안 사 먹기도 했고, 그래서 황달에 걸리기도 했고, ABC 간염에 통째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간염인줄도 모르고 다니

졌고 나머지도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도 생겼는데 그것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겪는 심장의 고통을 저도 겪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습니다.

아내에게는 '내가 못 돌아오면 죽었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하

자녀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한 선교사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앞선 윗마를 선교사님들의 사연과 사역에 비하면 저는 조족지혈입니다. 10년, 15년 이상 생명을 걸고

긴 것이 오히려 그때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의미로 "살려고 윗마를 선교하길 바란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당신 안에서 욕심의 자아를 죽이고 살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윗마를 분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2강 / 유다, 요셉(1)(창세기 37-41장)

유다 이야기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로 어머니는 레아였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다'보다는 '유다가문', '유다자손'이 더 유명합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 왕을 거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아들 르우벤의 자손이 아니고 르우벤 대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의 자손도 아니고 왜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역할을 합니다. 총리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베냐민만을 놓고 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것입니다(창44:14-34).

유다 자체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명과 유다에게 주신 사명, 요셉을 통해 하실 일과 유다를 통해 하실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창49:10/마 1:1-16/히 7:14).

유다와 다말

이제 유다 이야기와 붙어 창세기 37장의 요셉과 39장의 요셉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는 다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로 시작되는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것이 싫으면 동침을 하지 않고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신25:5-10). 그런데 어머니는 '씨가 있게 하라'는 아버지 유다의 말을 어기고 동침만하고 자신의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오난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습니다(창38:8-10).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고

결국 유다의 자손이 풀길 위기에 처하자 함당함 떠느리의 위치에 있던 다말이 창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창38:12-23). 다말의 행위는 정욕에 이끌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다말은 임신한 사실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만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받아들여 담보물로 인해 살아나고 마침내 유다의 씨를 해산합니다(창38:24-30). 그리하여 유다 가문에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어가게 됩니다. 성경



들로 돌아오는 모양으로 드러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델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지나 야곱을 넘어 요셉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 덩어리로 보았듯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없는 순종을 한 삶이 이삭 자체의 의가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었듯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절대로 요셉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롬15:5/참고.

꿈이 아닌 요셉이고 지금도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될 시작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창37:2)로 서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전'의 요셉

요셉은 앞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입니다. 이미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받아 구별되어 태어날 때는 아버지는 1명이었지만 요셉 앞서 10명의 형들과 1명의 누나가 3명의 야곱의 다른 부인들을 통해 태어나 있었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언니인 레아의 여섯 아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여중들의 아들들도 돌씩, 돌씩 끼리끼리 묶여있었을 것입니다. 절대 평안하고 편안할 수 없는 환경에다가 하나님은 요셉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창29:31-30:24).

또한 어머니 라헬은 요셉이 몇 살 때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에, 한창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창35:16-22). 요셉의 유년시절은 상당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남편인 야곱이 항상 편애하듯 사랑한 여인 라헬이 살아 있을 때는 어찌 할 수 없었던 3명의 다른 부인들도 라헬의 죽음으로 또다시 보이지 않는 야곱 쟁탈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대로 친 형제들끼리, 배다른 형제들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다'(창37:3)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미운털이 박힌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죽음 이후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환경에서 어린 동생 베냐민과 함께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였다'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지나왔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hfamilya@gmail.com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절대로 요셉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버리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38장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할 다말은 향후 요셉의 삶이 어떠한 것일지 암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사이에서 옐,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습니다(창38:1-5). 그리고 유다가 장자 옐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다말입니다. 그러나 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의 자손을 이어가야 합니다. 만일 그

했습니다(창22:17,18). 그런데 지금 오난의 행위는 앞으로 유다의 가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옐의 아내인 다말을 그의 세 번째 아들인 셀라에게 주어 자손을 이어가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창38:11). 유다 역시도 그의 자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 셀라의 생명을 염려하여 그 씨의 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은 다윗을 소개하는 룯기 4장에서 다말을 유다보다 앞세우고(룯4:12)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다말을 등장시킵니다(마1:3). 다말이 떠느리의 자리에서 창녀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떠느리의 자리를 회복하는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십자가를 지나 무덤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가 앞으로 요셉의 삶이 아들에서 종으로, 죄수로 그리고 다시 아

시115:1).

야곱의 족보에 요셉의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삶은 앞치락뒤치락 인생을 살며 인생의 up and down을 반복하며 마침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의 철저한 삶을 통해 드러낸 야곱의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이어 이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창27:29)의 주인공이 야

국가조찬기도회..

(10면에서 계속) 회장 손성대 장로는 "지난달에 임원간담회로 모이고 한달 여만

에 다시 건장한 모습을 뵈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며 한국본부 소식을 전했다.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11월 25일에 예정된 연례기도회를 코로나 상황이라 더 악화돼

비대면으로 갖게 되면 대통령이 영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극동방송 1분 기도회는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회장단과 운영위원, 이사진들과 목사들이 참

여했으며 이제 해외지회로 순서를 돌려 첫 번째로 뉴욕지회가 9월 27일 오전 7시에 순서를 맡았다.

손 장로는 Morgan Stanley의 부사장 정훈 간사가 21회망재단

의 재정고문으로 위촉된 것을 알리고 뉴욕지회 다음 월례기도회는 12월에, 연례기도회는 내년 2월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지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단비기독교 TV방송

1분기도회를 진행했으며 향후 2차, 3차를 계획하고 있다.

(기사제공: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광야에서 받은 시험(2)(눅4:6-8)찬93장

6-8절은 예배의 대상을 바꾸려는 시험입니다. 첫째,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는 시험은 사탄이 노리는 최종목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오직 예수의 신앙을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둘째, 이것은 성경의 뜻을 밝힘으로서 응수하셨습니다. 신6:13에 명시된 1계명을 왜곡시킨 사탄은 그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것처럼 모든

유혹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셋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그를 신실히 섬겨야 합니다(히13:15-16). 우리는 마음은 물론,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관계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화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3)(눅4:9-13)찬393장

세 번째 시험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명예욕과 관계됩니다. 첫째, 구속성취를 위해 극적장면을 연출시키도록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방법을 포기케 하려는 것입니다. 후에 겐제마네 동산에서 사탄은 또 다시 편한 길을 택해 십자가 길을 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성부의 자원해 내어주시는 사랑과

성자의 십자가 길의 선택과 성령의 성취하시는 자원의 사역으로 구속이 성취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하심은 주권의 인정입니다. 혼란과 혼돈이 계속될 때 살 길은 주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주권주의가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수 주님 사역의 요약(1)(4:14-15)찬453장

누가는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두 절로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14-15).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잉태부터 성장과정, 그리고 공사역이 모두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주 앞

에서는 날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 사람입니다. 둘째, 그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소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해진 복음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온 세상을 복음화 하는 지상명령은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일어납니다. 나 자신이 성령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목 주님 사역의 요약(2)(눅4:14-15)찬399장

첫째, 그는 회당을 중심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거점은 갈릴리와 회당이고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파급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생긴 모든 문제는 그가 일하시는 활동 무대였습니다. 둘째,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사

역과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전파되었습니다. 구속주로서 인정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그의 오신 목적이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구속주로서의 정체성이 인정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거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야합니다.

금 회복의 은총(눅5:1-8)찬337장

베드로의 실과 속에서 얻은 은혜를 보여준 8절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실패와 기적 속에서 자신의 무력한 죄인됨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죄인의 모습인 자기를 아는 것이 은혜 중 은혜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따르던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과 근본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

는 신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사람을 취하라는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기적으로 생긴 교만함보다 평범한 삶에 겸손함이 가치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한 기적체험도 귀하나 기적 그 후 겸손히 본래 사명을 확인함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자아부인을 전제로 할 때 아름답습니다.

토 임하신 그 나라(눅5:27-39)찬28장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하신 하나님나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마태 레위를 세관에서 부르신 후 초대된 잔치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치에 더 치중하는 점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4가지 비유(의사, 금식, 새옷, 새포도주)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미 임했고 자신은 그 나라 왕되심을 주장하시며 새시대에 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나라는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닌 죄인으로 지탄 받는 장소에 임했습니다. 그 왕은 있는 그대로의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30-31). 셋째, 새 시대에 걸맞은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시대의 걸음을 벗고 복음 안에서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38-39). 어두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의 열매를 맺힐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6)

하나님의 자국을 남기는 사람들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단7-12장)로 가보자. 이전에 언급했듯이 다니엘서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특히 다니엘 7장은 벨사살왕 원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로 보면 다니엘 5장 이전에 위치해야 함이 옳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장래를 중점적으로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는 비교적 신약성경의 요한 계시록과 같은 묵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번 호부터 다니엘서 후반부를 살펴볼 예정이지만 신학적 논쟁의 요소를 가급적 배제하고 신앙적, 교육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해보고자 한다.

7장에서는 그가 장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 짐승 넷(독수리, 곰, 표범과 열 뿔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다. 이 네 짐승들은 사실 다니엘 2장에서 느브갓네살왕이 본 금 신상의 머리, 가슴/팔, 종아리 및 발 부분에 각각 해당된다(단2:31-35). 네 짐승과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과 최후의 승리를 다시 한번 천명하게 되지만 그는 곧 슬퍼하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다니엘 7:28에는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낮빛이 변화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

의심하는 자, 불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를 아람어로 기록했다. 아람어는 당시 세계적인 공용 언어로 무역, 외교어로 흔히 통용되었다. 다니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의 되어질 일들을 그 당시 세계어로 기록되어 누구든지 쉽게 읽어보도록 썼던 것이다.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 하나님의 비전과 정체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나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둘째, 겸비한 사람이다. 겸비한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덜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은 후세를 위해 유산/기록을 남겨 하나님은 비전과 정체성이 충만하고 겸비한 사람 사용

직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있다. 왜 그랬을까? 그가 번민했던 것은 인간의 왕조, 약한 왕들의 행태로 믿는 자들,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던 것이었다.

특히 4번째 왕조(열 뿔을 가진 짐승)는 곧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작은 뿔 안티오크스 4세를 의미한다. 성도들의 핍박을 환상으로 본 다니엘은 매우 고통스럽기에 그의 얼굴빛이 변한 것이었다. 이러한 놀라운 미래를 그는 함께 나누며 기도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세 친구들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를 그의 마음에 홀로 간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를 기록하여 후세의 사람들도 알게 했다. 왜 하나님은 이때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을까?

벨사살왕 원년이라 하면 다니엘이 60대 후반이 되어 이제 은퇴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이다. 특히 벨사살은 바벨론 마지막 왕으로 문명의 부침이 매우 심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는 다니엘이 18세 때 느브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해준 이후 약 50년이 지났을 때이다. 바로 은퇴를 해야 할 시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고 이를 기억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왜 그랬을까?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확실하게 간직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를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요구하신 것 아닌가? 그가 이해하든지 아니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이다. 하나님을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 불행한 일을 당한 이웃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심판은 원래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벧전 4:17).

다니엘은 그래서 기록을 남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후세를 위해 유산을 남겼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강 중앙에 있었던 돌 12개를 취해 길가에 세워 후대 자손들에게 민족의 역사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였다(수22:24-27). 모세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쳤다(신4:9).

바울은 어떤가? 그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멋있게 증거하기를 꿈꾸었다. 아마 그는 거대한 콜로세움에서 혹은 대형 원형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기대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달랐다. 하나님은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되어 후대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록을 남긴다.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우리 후세들,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hlee0414@gmail.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6)



5. 8월 여름 성경학교
여름 방학중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20세를 기준으로 한 주는 20세 이상, 한 주는 20세 미만으로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월화목금 2주 동안 진행한다. 찬양과 예배, 수영 놀이,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영화관람 등 야외학습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특히 8월은 학교나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성경학교는 유익하다.

6. 9월 대통령상 시상 및 봉사자 교육
고등학교 9학년부터 봉사자를 받는다. 빠지지 않고 성실히 봉사한 학생들을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9월에 대통령 봉사상 시상한다. 이 일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사랑과 선정을 격려하고 대학입학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이 섬기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게 한다. 또 매 새로운 학년이 시작하는 9월에 봉사

를 생각하며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밀알선교단은 일년에 한 번 행사를 통하여 기금모금행사를 한다. 각 교회에서 10명 기준 한 테이블을 후원한다. 그리고 광고 후원을 통해서도 기금 마련한다. 가현욱 박사 등등이 감사로 와서 50분 정도 간증을 하고 밀알 장애 학생과 봉사자들이 난타 공연을 하며 수화찬양도 하며 뉴저지남성목

들을 위한 밀알선교단을 세우기를 결정하여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통기 빈민가에 아가페 홈과 학교를 세웠다.
강미경 사모가 매년 2번 4개월 정도씩 방문하여 현재는 흥두석 선교사님과 함께 비전스쿨도 개설하여 현재 장애인 30명 정도 사역자 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세계 밀알연합에서는 이혜진 선교사를 파송하여 함께 사역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인구밀도



밀알 피크닉 모습

세계장애인 선교 꿈꾸며 방글라데시 빈민가에 아가페 홈과 학교 세워

자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누구인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봉사자 교육을 한다.

사함찬단의 공연도 있다. 저녁 6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 2017년에 13회째 진행하게 된다.

가 가장 높은 나라로 최빈국 중의 하나이며 이슬람 수니파에 속해 있으며 장애인 선교와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와 병원치료를 하고 주님 말씀과 찬양으로 교육하고 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 학교와 연결하여 그 학생들이 장애인들을 섬기게 함으로 섬기는 리더를 키운다.

7. 10월 가을소풍
매년 가을에 소풍을 간다.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봉사자, 후원자 등등이 함께 모여 함께 식사도 하며, 게임도 하고 교제를 한다. 200명 정도 모여서 피크닉은 주님 주신 자연을 감상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9. 12월 밀알송년의 밤
매년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 무역공사 KOTRA에서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여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다.

이 작은 방글라데시 밀알이 자라서 50년 후 100년 후 많은 방글라데시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또한 방글라데시에도 한국이나 미국처럼 장애인 복지와 교육이 활발해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방글라데시에도 장애인들을 통해 증거되어 그 사회와 나라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miju92@gmail.com

8. 11월 추수감사절 디너
매년 추수감사절 절기에 특별한 강사를 초청하여 풍성한 음식과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그 주 토요일 호텔을 빌려서 400여명 정도가 모인다. 타지에서 모이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 혹은 교회 친구들이 모여 감사의 의미

제 7절 방글라데시 장애인 사역
뉴저지밀알선교단은 뉴저지지역 장애인 뿐 아니라 세계장애인 선교를 위해 꿈을 꾸며 기도해 왔다. 30여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청각언어 장애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조상희 선교사(청각언어장애)와 그동안 교제를 하다가 2009년 강원호 목사님과 강미경 사모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고 그곳에 청각언어 장애인들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

선교 펴기

파라과이

기독교 예술유초중고등학교(facebook:colegio cristiano arte), 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facebook:facultapresbiterianadelparaguay)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pandemic을 잘 견뎌내고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맞보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1. 4개월반 동안 한국에서 은혜 중에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 묘를 자주 뱃배의 공격으로 훼손되어서 평토장으로 만들어 안장하였습니다. 이 날은 엄청난 비가 쏟아졌지만 너무 먼 거리이라 다시 찾기가 어려워 비를 맞고 평토장을 다 마치고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사둔 선교사(이신숙)가 코로나로 순직하여 현지서 화장하여 유골을 한국 대전 남골당으로 모셔 안장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막내 정다운(사위: 이경승)이 가족 5명이 선교사로 헌신 한국에서 마지막 훈련을 은혜 중에 마치고 9월 30일 선교지 브라질 마나우스로 가는 일입니다. 원래는 파라과이로 와서 학교 사역을 이어받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모님이 천국 가시는 일로 인하여 시부(이성진 선교사) 혼자 계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의문결과 브라질 아마존 정글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린 3자녀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길 믿고 아마존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합검사를 다 마치고 아내 이복래 선교사는 파라과이서 5곳을 헤매던 병명이 사라지고 건강을 많이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남은 치료를 위하여 1개월반 정도 한국에 더 체류하는 일입니다.

저는 한국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혜택을 누리려면 파라과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여 은퇴하고 한국으로 오라는 것으로 신혼이 더 남아있는 것 같이 기초연금도 건강보험도 포기하고 아프지 않고 병원까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 왔습니다. 돌아오니 사역들이 산적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2. 기독교 예술 유초중고등학교
코로나로 대면 교육이 없었고 지난 7월부터 대면 비대면 50%씩 하는데 그렇잖아도 낙후된 교육이 정말 말 그대로 엉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교사와 있고 집에 컴퓨터가 있는 가정은 30% 정도이고 교육진행이 한집에 학생이 3-4명 있는 가정은 얼마나 아파 핸드폰으로 3-4명의 교육이 불가능하고 엄마아빠가 직장가면 완전 불통 교육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대안은 한집에 적어도 컴퓨터를 한대씩 주는 것이 그나마 해결이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학기말 시험을 대비하는데 10월 한달은 100% 대

면으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9월 21일은 봄날과 청소년 날이라 아름다운 행사를 하며 7-12학년까지 청소년들에게 한 교사가 한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행사도 하였습니다.

3. 할렐루야교회는 대면예배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것을 지난 9월 19일 주일 26주년 교회생일을 맞아 대면예배로 바꾸고 생일잔치를 하였습니다. 바리바리 준비해온 한국 선물들과 통닭 한 마리씩을 나누어드리며 샌드백으로 고난당하는 말세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 구원영생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성도의 자랑할 일이고 필수라고 강론하였습니다. 사랑과평화교회에도 식품 전도가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품팔이로 하루 먹는 가정들이 많고 직장이 없는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일도 곁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갈에는 못 붙는 격인 가정들이지만 그 흙탕물 그곳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수와 쌀을 배달하려고 합니다.

4.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1)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공부를 잘 인내하여 아름답게 지내왔는데 2022년 새해를



맛도룩
2)가정에 식품을 나누어주는 일과 전도와 심방으로 교회가 더욱 신앙성숙이 이루어지도록

3)어려운 중에서도 새로운 일곱 번째 개척지가 정해져서 준비가 잘되어 씨를 심고 움이 돋고 꽃이 피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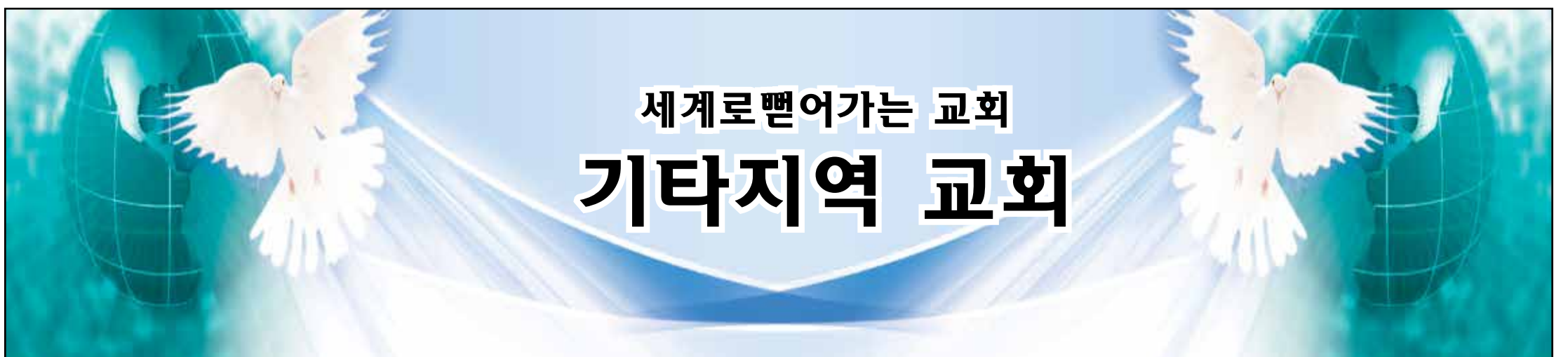
4)막내딸과 사위 목사 안수와 선교사 훈련을 다 마쳤는데 선교단체 파송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5)이번에도 한국서 올 때 전도용품과 학교 교회 사용할 필수품을 좀 가지고 왔는데 새해 2022년 전도하는데 필요한 좋은 전도지와 전도용품(한장짜리 달력, 지갑용 전도지 등)을 만들어 더욱 새롭게 전도하도록

6)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도신경 심계명 강해 공부에 잘 참석하여 성경구절을 필사할 때에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일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헌정 찬양: 목요일 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49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501) 920-9049, www.iejasa.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영양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금) 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효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책 소개



저자 현영갑 목사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

뉴욕샘물장로교회 담임 현영갑 목사의 두 번째 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유'...

스 주연의 영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고 그 때 하나님 앞에 책 7권을 쓰셨다'고 서원했다며 이번이 그 두 번째 책이라고 소개하고 세 번째 책도 저술 중에 있으며 제목('베



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영성화 개론"도 정해졌다고 말했다. 현 목사는 이날 자유에 대해 설명하며 "책이지는 자유, Liberty for가 Freedom이고 이것이 절제의 자유, 하나님의 법(말씀)에 의해 조절되는 자유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으로 세워진 미국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는지를 알게 된다"고 밝혔다. 책은 1장 하나님의 구속사 개관, 2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쟁과 쫓이 흐르는 가나안 땅, 3장 하나님이 자유를 위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세움, 4장 이스라엘 왕정제도의 특징, 5장 제사장 직분과 목사의 직분, 6장 대한민국, 조로중(Progeroid Syndromes)에 걸리다 등 각 장 아래 소제목의 글을 붙였다.



현영갑 목사가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 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지회 사무총장으로 재임시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사'세미 나를 인도했다. 현재 유튜브 '오른날개TV'를 운영하고 있다.

책 가격은 20달러, 1권 "자유"와 함께 2권 구입은 30달러에 할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출판기념회는 10월 6일(수) 오전 10시 뉴욕샘물교회(82-06 Bell Blvd, Queens Village)에서 열린다. ▲저자 연락처: yhyun769@hotmail.com (유원정 기자)

부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유' 1권 "자유"에 이어 "국가"에 대한 내용 다뤄

현영갑 목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캐스트 어웨이'(툼 령크

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정신

을 졸업하고 샘물장로교회를 개척했다.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

를 졸업하고 샘물장로교회를 개척했다.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

기도/칼럼

아름다운 얼굴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얼굴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대할 때 얼굴부터 봅니다. 그래서 얼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합니다. 때로는 수술해서 고치기도 합니다. 좀 더 잘생기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합니다. 인상은 수술로 바꿀 수 있겠지만 표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표정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일화입니다. 비서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에게 내각으로 추천할 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못생겨서가 아니라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말하기를 "뺏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 이 사실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항상 얼굴이 시무룩하거나, 찌푸리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평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내 삶의 흔적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표정이 어둡고 그늘져 있다면 마음이 항상 우울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밝게 웃고 있다면 마음이 언제나 명량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영광중에 거하다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원통할 때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얼굴에 근심 빛이 사라졌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 같이 빛이 났습니다.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추천장과 같다면 아름다운 마음은 신용장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얼굴로 예수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전8:1). bible66@gmail.com

독/자/투/고

박성원 목사 (뉴욕나눔하우스)

지난 8월 25일 뉴욕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산소호흡기로 겨우 숨을 연명하던 박천길(81세)씨의 이야기다.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롬메이트 생활을 하였던 박씨는 1년간 란트비를 내지 못하던 중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해 뉴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의 지인이었던 김효순 목사(구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에게 그의 딱한 소식을 전했다. 코마상태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박천길씨의 안타까운 소식에 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목사는 곧장 박천일씨를 방문했다.

세상과 작별을 고하기전 박 목사는 박천일씨에게 말을 걸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가야한다는 박 목사의 목소리에 박씨의 귀의 움직임이 보였다.

"내 말이 들린다면 눈을 깜박여 보세요." 박씨는 감고 있던 눈을 찡그리듯이 깜박이며 박 목사에게 응답했고 목소리에 반응을 보이자 박 목사는 박씨의 영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구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심 하셨다면 눈을 두 번 깜박여주세요."

박씨는 두 번 눈을 깜박여 응답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박씨에게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와 같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천국의 소망을 박씨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틀 후 박씨를 다시 방문한 박 목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동행자가 되심을 믿게 하심에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드릴 때에 박씨의 눈이 뜨였고 혼수상태에서 깨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예배와 교제를 마친 후 박 목사가 병실에서 떠나며 손을 들어 인사하자 흰 붕대로 감겨있는 오른손을 위아래로 세 차례 들었다내려 함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병상의 박천일씨가 한국의 조카와 통화하고 있다.

81세 박천일씨, 코마상태로 입원 중에 하나님 영접하고 한국 가족과 영상통화도

무연고자로 처리돼 장례를 치르게 될 처지에 있던 박천일씨는 천국로 뜻을 맞는 기쁨을 갖게 됐다. 나눔하우스 대표 박 목사는 박씨의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 박씨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의 조카로부터 앞으로 모든 의료행위와 장례까지 나눔하우스 박 목사에게 위임했다. 의식이 회복된 박천일씨를 돕기 위해 나눔하우스 스텝 박진수 목사가 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섬기고 있

다. 현재 박 목사는 한국으로의 귀국을 원하는 한인 노숙인을 돕기 위해 나눔하우스와 같은 사역을 하는 한국의 비영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월터구입 2차 모금을 위한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에 있다. 한국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 공항픽업은 물론 2주 자가격리,

주민등록증 재발급, 의료보험과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눔하우스의 월터 구입이 신속히 이뤄져서 한인노숙인들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돼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하우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From Birth to Now' by Kim Jong-hwan, featuring a book cover, author photo, and promotional text.

날 때부터 말긴 바 되었고

이민생활 37년차 기독교 교육학 김종환 교수의 자녀양육 멘토링

부제: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민자의 자녀양육

"김종환 교수는 32년전 제가 만난 저의 첫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향기가 있고 영적 소신이 있었습니다. 미주중앙일보에 실렸던 소중한 컬럼들을 이번에 책으로 출간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그의 신앙과 깊은 통찰력을 담은 이 책이 많은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추천



저자 김종환 교수 달라스 침례대학교 신학대학 부학장, 기독교교육학 교수 Associate Dean an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Mary C. Crowley College of Christian Faith Dallas Baptist University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비영리단체 주라 인터네셔널(JURA INTERNATIONAL)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구입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온라인 구매 : WWW.HISFINGERMALL.COM 달라스 지역 : 북나라(BookNara) 2625 Old Denton Rd #328 Carrollton, TX 75007 (972)245-2665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시 8:3) ...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 8:6)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출판상담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